

20일 Market Index			
↓ 코스피	7208.95	↓ 코스닥	1056.07
	(-62.71)		(-28.29)
↑ 금리 (미국 3년)	3.760	↓ 환율 (원/달러)	1505.65
	(+0.009)		(-2.15)

조선 빅3
피크아웃 대비
방산·해양·시엔진 확대
04



노동장관 직접 중재... 피 말리는 삼성 노사협상

가계빚 2000조 톱밀 기준금리 인하 변수

다시 협상 테이블 앉아

2차 사후조정·추가조정도 결렬
'영업익 13% 요구' 사측서 반대
李 대통령 '과유불급, 물극필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염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하루 전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청와대는 사후조정 불성립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2차 사후조정과 이날 오전 추가 조정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종노위는 노조 측이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이 최종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영훈 장관이 중재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극적으로 교섭을 재개했다.

앞선 결렬 경위를 두고 노사 간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최승호 초기노조 삼성전지지부 위원장은 "노조는 전날 밤 종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끝내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 훼손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측은 "노조요



삼성그룹 초기노동조합 삼성전지지부 최승호 위원장(왼쪽)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구안을 수용할 경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회사 경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부문 공통 배분 비율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 13%에 OPI 주식보상제도를 추가하고 부문 70%·사업부 30% 배분 구조와 5년 제도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적자 사업부 직원들까지 동일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박수근 종노위 위원장은 "일부 내용은 상당 부분 접근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 압박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

고 밝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긴급조정권에 선을 그었던 김영훈 장관도 이 대통령 SNS 게시물에 "노사 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글을 달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불성립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 파업 시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단되며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성과급 배분은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닌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사측이 거절할 수 있는 경영권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전·전방산업이 안전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메모리 호황의 과실이 메모리 근로자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영업이익 배분, 주주가 하는 것... 노조 요구 이해 안돼"

李 대통령, 삼성 노조 겨냥 발언
"노동 3권, 사회적 약자 위한 것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0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과 관련해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관철하려고 집단적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발언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단체인 노동, 단결권, 교섭권 이런 것"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노동 3권도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노사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

다"며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게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물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과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절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타당하지 않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

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적절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무신사 광고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롱하는 광고 사실이라면 심각"
▲노태약 선거관리위원장 "지방선거 불필요한 오해·의혹 발생하지 않게 최선" /사진 뉴시스

▲김정관 "원유 비축, 8월 이후엔 불투명... 최악의 상황 염두 대응"
▲조승래 사무총장 "김관영 복당, 당 대표 바뀌어도 안 돼"

▲국힘 "전재수, 보좌진을 출세 소모품으로... 부산시장 자격 있다"
▲"후보자가 이런 망언을?"... 틱톡, 지선 앞두고 AI 허위정보 칼팠다

美 장기 금리, 금융위기 직전 수준 월가 '채권 자경단' 그림자 드리워

10년 4.67%·30년 5.2% 고공행진
금리인상 가능성에 시장 불안 고조
기술주 등 밸류에이션 부담 커져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으며 월가에 다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번에는 고유가와 재정적자 확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20%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도 5.18%로 마감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4.67%까지 상승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앞으로는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금리 인하 기대는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 부상"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자로 국제 발행이 늘어나자 장기물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12월까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이상 인상할 가능성을 41.4% 반영하고 있다. 일주일 전보다 약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모닝스타의 리즈 템플턴 수석 상품 매니저는 "시장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장기 국채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ING의 벤저민 슈뢰더는 "수석 금리전략가도 '시장은 명확히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는 22일 취임하는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도 부담이 커졌다. 그는 과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취임과 동시에 마주한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의 역습...기술주와 소비까지 흔들다

장기금리 상승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카드 금리가 오르면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진다. 이는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을 바탕으로 급등했던 반도체와 기술주는 금리에 민

감하다.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는 성장주의 특성상 금리가 오를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나스닥 종합지수를 중심으로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에도 이러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고유가, 재정 부담, 국제 공급 확대라는 조합이 전 세계 채권시장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월 맥거프 프라이م 캐피털 파이낸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채권 자경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이 정부와 중앙은행에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재정·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채를 대거 매도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을 뜻한다. 이용어는 월가의 대표적인 시장 분석가인 에드 아테니 아테니리서치 대표가 1980년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테니 대표는 특히 케빈 워시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예상보다 매끄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케빈 워시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재하게 되지만 실제 통화정책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채권 자경단'이라며 "채권시장은 케빈 워시의 비둘기파적 입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구윤철(왼쪽 2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수아 필립 상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정부 내수 활성화 정책 등 소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힘 모아야"

G7 재무장관회의

獨·프랑스 등 재무장관 양자 면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이어 흑자국과 적자국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함께 헤쳐 나가야만, 각국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의 길이 열리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회원국 외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등 4개국이 초청국 지위를 가졌다.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초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이달 18일 G7 회원국만 참석한 데 이어 19일에는 초청국까지 포함해 열렸다. 중전에 우리 정부는 확대세션 '일부' 논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1세션은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열렸다.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요청받고,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특정 국가

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외국 내수유입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수원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다자개발은행·민간부문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기반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 AI 역량 강화를 G7 핵심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독일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캐나다 프랑수아 필립 상파뉴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가공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 측은 한국의 핵심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고 공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공급망·경제안보·AI 협력 등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중동리스크에 원화 약세... 환율 1500원대 지속

에너지 취약성 등 불확실성 영향
주요국 통화대비 하락세 두드러져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에너지 취약성 및 삼선전자의 파업 돌입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원화값이 다른 통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6.8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와 비교해 1.0원 내린 수준으로, 주간종가 기준 환율이 4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기면서 고회환율에 대한 우려도 재부상했다.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원화값의 약세도 이어졌다. 이날 원·엔 환율의 주간 종가는 100엔당 948.3원을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원·위안 환율은 위안당 221.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원·유로 환율은 유로당 1748.6원을 나타내 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눈앞에 뒀다.

최근의 원화값 하락은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위축 때문이다.



20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에 거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기반 해상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측은 이번 상품을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달 7일 설립된 이란 해협청도 이날 SNS를 통해 "허가없는 통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라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해외 투

자의 매도세도 원화값을 끌어내렸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우려와 삼선전자의 총파업 가능성 등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차익실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자금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을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해외 투자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바라보는 심리가 악화됐으며, 원화의 약세 기대치도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씻어줄 호르무즈 항행 정상화나 중전협상 진전 등 호재가 부족한 탓에 당분간 시장의 위험자산 포지션 정리와 높은 현금 선호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신중국 통화인 원화 입장에서 강달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에 저항선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이달 금통위 '금융안정 평가' 관심집중

>> 1면 '가계빚 200조...'서 계속

변수는 주택 거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두고 매물이나 오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선행지표인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4월 흐름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5조5000억원 늘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됐고, 은행권 주담대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면 한은의 통화정

책 판단은 더 복잡해진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와 주택시장 기대를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금융안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의 금리 선택은 이미 물가 반등과 고환율 부담으로 인하보다 동결 또는 상방 경로 점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더해지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

5월 금통위의 관심도 기준금리 결정 자체를 넘어 금융안정 평가로 넓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와 환율이 금리 경로의 상단을 자극하는 변수라면, 가계부채는 금리 경로의 하단을 막는 변수다. 물가가 둔화되더라도 주담대와 비은행권 대출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통위들이 인하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반도체 멈추면 최대 100조 손실... 中 경쟁사 반사이익 우려

생산 차질에 성장률 0.5%p 하락 우려
엔비디아·AMD 고객 이탈 가능성
中 반도체 업체 점유율 확대 우려
업계 "고객 신뢰 훼손이 더 치명적"
파업 장기화 땀 경제 부담 불가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3시경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 붙어있는 사측 규탄 플래카드.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우리 한 몸, 한 가족"이라는 호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국가 경제 부담은 물론 글로벌 경제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 단순한 회사의 손실을 넘어 한국 경제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경우 직간접 손실이 총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24시간 내내 수백 개의 초정밀 공정으로 이어지는 장치 산업인 만큼 단기간 멈춰도 피해는 견줄 수 없이 커진다. 특히 파업 이전 생산 축소 작업과 파업 종료 이후 자동화 라인 재가동·품질 안정화 과정까지 진행하면 실제 정상화까지 한 달 이상 소요

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피해 규모는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정전 사태를 비교한 수치다. 당시 28분간 라인이 중단됐지만 약 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환산하면 시간당 약 1000억원, 24시간 기준 2조 6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 제조공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

모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총파업을 주요 거시경제 리스크로 보고 영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18일간 총파업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이 전면 중단되고 정상화까지 약 3주가 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30조원에 이르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에 따른 영향이 회사 내부에 그치지 않고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국내 수출은 물론 글로벌 IT 공급망 등 첨단 제조업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메모리 공급 차질이 현실화 되면 협력사와 고객사 등의 부담이 확대된다. 이

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여전히 강한 엔비디아·AMD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이 점유율 확대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사실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반도체 제품 생산 차질보다 고객 신뢰 등 복합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기업의 문제로 정리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노사협상 결렬 소식에 靑도 재계도 우려

영업의 배분 방식 놓고 이견 내부 불만·시민 반응 엇갈려
생산차질·고객신뢰 하락 우려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지연되며 총파업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와 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두고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성과급 배분 방식을 꼽았다. 특히 후

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적자 부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막힌 것 같다"며 "성과를 낸 부서가 일정 부분 부담을 나누는 방식 등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사측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삼성전자 DS사업부 직원 정모씨는 "신뢰관계 붕괴와 파업에 대한 결과 등이 모든 사태는 결국 경영진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권모씨는 "성과급 제도화를 투명하게 하는

계 핵심인데 외부에서는 단순히 돈 더달라는 식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직장인 권모씨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와의 보상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반면, 삼성전자 주주 박모씨는 "주주 입장에서는 파업 장기화로 주가가 흔들릴까 가장 걱정된다"며 "성과급 문제로 총파업까지 가는 것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총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



주주단체 "주총 없는 영업의 성과급은 무효"

영업의 연동 성과급 논란 가처분·무효 소송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명문화하면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예고는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노사 간 문제를 넘어 주주 권리 침해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사 최종 합의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내용으로 할 경우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합

의하면 상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총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즉시 제기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주단체는 노조를 향해라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위법한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라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및 기담한 개별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추가 하락 및 배당 지연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구병기 기자 koosija_tea@



조선 빅3, '피크아웃' 대비 방산·해양·AI 엔진 사업 확대

LNG 운반선 호황에 역대급 실적 내년 이후 추가 개선 여력 제한적 특수선·방산 성과... MRO 선점 치열 해양플랜트, 선별 수주 중심 활기 AIDC 전력난 겨냥 중속엔진 속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가스운반선.

/삼성중공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가 방산·해양플랜트·AI 데이터센터용 엔진 등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융합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슈퍼사이클 종료 후 겪었던 장기 불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증권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이후 LNG선 발주 물량과 선기의 추가 개선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올해 글로벌 LNG 운반선 인도량이 사상 최대 수준인 90~1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했다. LNG선 공급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조선 빅3 수주잔고의 상당 부분(약 70척)을 차지하는 카타르 LNG 확장 프로젝트의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향후 운임 하락과 발주 둔화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장의 지표는 견고하다. 최근 신조선 가지는수는 184.37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

고 있다. 국내 조선 빅3의 올해 누적 수주액도 199억6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주액 163억7000만달러를 넘어섰다. 다만 업계는 과거 장기 불황과 구조조정 기업을 의식해 호황기에도 선제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는 특수선과 방산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

난 4월 스웨덴 해상정으로부터 3억4890만 달러 규모 전기추진 쇠빙선을 수주하며 유럽 중심 시장에 진입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로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필과 협력해 미 해군 함정 정비·모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시장조사기관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은 올해 약 80조원에서 2029년 약 8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미 해군 군수지원함 'USNS 세사르 차베스'와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 정비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한화오션도 올해 미 해군 MRO 사업 2건을 따냈으며,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시장도 선별 수주를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델핀 FLNG 추가 수주를 추진 중이

고, 한화오션은 싱가포르 해양 상부구조물 업체 인수를 통해 오는 2027년 이후 '2년마다 FPSO 3기' 건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HD한국조선해양도 올해 1분기 해양 부문 영업이익이 8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2% 증가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난을 겨냥한 중속엔진도 새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 전력 인프라 기업과 6271억원 규모의 '힘센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텍사스 데이터센터용 엔진 장기 MRO 계약을 확보했다.

윤현규 국립중앙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업은 사이클 변동성이 큰 만큼 호황기에 불황을 버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조선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MRO 사업이나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유통업계, 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1번점' 선점 속도

백화점, 지방 점포 확장 가장 적극적 뷰티·패션, 핵심상권 대형매장 출점 외국인 관광객 관광지역 다변화 영향



조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시

수도권 중심이던 유통업계의 투자 축이 지방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백화점과 H&B, 패션 플랫폼 업계까지 부산·광주·제주·경주 등 주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점과 리뉴얼 경쟁에 나서며 '지역 1번점'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방 관광 활성화 흐름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점포가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주요 유통기업들은 비수도권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대형 점포 출점과 리뉴얼, 복합쇼핑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수도권 중심이던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랜드마크 점포를 통한 관광·체험

형 소비 수요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지방 점포 확장을 이어가는 곳은 백화점 업체다. 이미 주요 점포별 매출액 순위에서 지난해 신세계 센텀시티점(3위), 현대백화점 판교점(5위), 신세계 대구점(6위)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백화점 빅3는 랜드마크형

복합공간' 조성과 지역 밀착형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부산 센텀시티점과 대구점을 앞세워 지역 대표 점포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부산과 경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더현대 광주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비수도권 유통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백화점 역시

지방 점포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리뉴얼을 마친 인천점은 프리미엄 콘텐츠 확대를 기반으로 수도권 서부 핵심 점포 도약을 추진 중이다.

뷰티와 패션 플랫폼 업체도 지방 상권 공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CJ올리브영은 올해 비수도권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핵심 상권 중심의 대형 매장 출점에 나선다. 부산·제주·경주 등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특화 매장을, 충청·호남·영남권에는 체험형 대형 매장을 구축해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신사 스탠다드 역시 오프라인 점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광주에 호남권 첫 매장을 연 데 이어 하반기에는 제주점 출점을 추진하며 비수도권 소비자 점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업계의 지방 점포 확장 흐름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방한 외국인 관광

객의 폭발적인 증가와 관광지역 다변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분기 최대 규모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중심 관광에서 지방 관광으로 확대 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율은 34.5%로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액도 23.0% 증가한 3조 2128억원을 썼다.

특히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한 부산의 경우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102만 3946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지난해 4월 세웠던 기존 최단 기록도 한 달 앞당겼다.

유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내수시장에서 외국인 카드 사용액 비중은 3.0%를 상회한다"면서 "항후 외국인 매출 비중이 상승하며 내수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세금 보조 받으며 6년간 밀가루 담합 '적발'

공정위, 7개 제분사에 6710억 과징금

국내 밀가루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림 등 7개 제분사가 라면·국수·과자 등을 만드는 대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합의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이어졌으며,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5조 6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7개 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점유율 87.7%(2024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로,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 대표사 및 실무자급 회합을 총 55회나 가지며 2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2020~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반대로 원맥 시세 하락기(2023년 이후)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

실제로 농심이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이들은 회합을 통해 최소 폭만 인하하기로 합의해 대응했다.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인하 요구를 거절



2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시

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대표 품목인 중력분의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보다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폭등했으며, 제분사들의 영업이익 물은 크게 개선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충북·경기 등 반도체 생산기지 실적 급증

데이터처 '1분기 지역경제동향' 광공업생산 증가율 전국 최고

올해 각 지역 경제는 반도체 생산기지 보유 여부에 실적이 좌우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1분기 광공업생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28.4%나 뛰었다. 대기업 반도체 제조시설이 충북 청주에 들어서 있다.

반도체·전자부품이 무려 85.8% 늘었고, 전기장비(72.2%)와 기계장비(22.8%) 생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최고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 전체로는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충북(28.4%)과 함께 울산(5.5%), 대구

(5.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북(-5.8%), 인천(-5.4%), 부산(-4.5%) 등에서는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지역이 수출 강세를 보였다.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의 비교해 606억 달러 늘었는데 경기(284억 1000만 달러), 충남(204억 8000만 달러), 충북(33억 9000만 달러) 등으로 증가 폭이 컸다.

경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거점 및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매·소매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8.7%), 대전(5.3%), 울산(5.0%) 등은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이 잘 돌아가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

-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中 -

그 한 줄에서 우리 금융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 최초의 민족자본 은행인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

그 마음 그대로를 오늘의 금융에 담아
새로운 우리 금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李 “우리 국민 잡아간 것 비인도적”... 이스라엘 강력 규탄

“이스라엘 영해 아난데 왜 체포하나”
참모들에게 국제법 위반여부 질의
ICC,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최근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가자 구호선단을 이스라엘 엘군이 나포한 데 대해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에게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이 나포된 가자지구 인근 해상이 이스라엘 영토인지 여부를 물었다. 최근 인권활동가 김아현·김동현씨가 각각 탑승했던 구호선 두 척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잇달아 나포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추방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봉사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한국인 활동가들을) 체포해서 감금했다는 게 타당하냐”고 묻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 이스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는 곳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스라엘이 그쪽에 통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다”며 “들어오는 선박들을 모두 다 체포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길 침범했다고 체포한 거냐”고 물었고, 김 차관이 즉답하지 않자

“모르는 거냐, 입장이 난처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냐.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 여기가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라고 질책했다.

김 차관은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든 선단들을 모두 체포하는 정황”이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이나 합법이나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아는 사람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고 다시 말했고, 위 실장은 “영해가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다. 일부에선 지금 이스라엘이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여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토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 전투 중이니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요새는 보니까 아예 선박 엔진을 폭발해 침몰시키는데, 끌고 가기가 숫자가 많다고, 선원들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바다 선박을 침몰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 이거냐”라고 또한번 물었다.

위 실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 비추어 말하면 교전 상태”라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교전 중이면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하는 게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네타냐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주문했다. 위 실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스라엘군) 잡아간 건 맞지 않냐”며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124개 회원국은 자국 영공과 영토에 네타냐후 총리가 진입하면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여야,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두고 공방

민주당, 정부 신중한 대응 기조 지지
국민의힘 “공격 주체조차 못 밝혀”

여야가 2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중한 조치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격 주체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며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58명이 있다. 성급한 판단과 강경한 대응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자국 선박이 공격받은 프랑스와 중국도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정부가 이번 사태에 관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 26척의 우리 배가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인질로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전체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확보되고 있다. 에너지 확보가 안 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피해국 대부분이 이란을 특정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격 주체가 미사일인지 드론인지 확인되더라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다른 차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배가 침몰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피격을) 했는지 밝히지 못한다는 건 정부

의 심각한 무능”이라며 “지난 4일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발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6일 청와대 안보실장은 피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동맹인 두 나라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격으로 추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바로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선박 26척이 가만히 있는데 공격받으면 안 참는다’고 해야 했다”며 “그래야 이란으로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 국영 매체는 이란 정부가 아닌 혁명수비대나 이란 내 다른 조직의 (공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모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두 다 이란 측 아닌가”라며 “이란 측이 우리를 피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가성적인 답변은 유보하겠다”며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피격했다고 결론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 잔해가 지난 15일 한국으로 반입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조사 중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솟츠 179만뷰 만든 경험으로 광진구민 공감 이끌 것”

6.3 지방선거
청년 출마자를 만나다

이진현 개혁신당광진구의원 후보(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4번·1998년생)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서도 손에 꼽는 20대 후보다. 이 후보는 청년과 기존 주민이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구(회양동·자양3·4동)의 특성상 시민의 불편함에 발 벗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여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진현 후보는 “저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동네의 불편을 실제로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이 매일 걷는 골목, 통학로, 상권, 원룸가에

③ 이진현
개혁신당 광진구의원 후보

“주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지방정치” ‘맛의 거리 상권 금연구역 추진’ 공약서 느끼는 불편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구의원이 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광진구 라선거구는 건국대, 세종대, 원룸 밀집 지역, 상권, 주거지가 함께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청년, 학생, 1인 가구, 자영업자, 기존 주민의 삶이 복잡적으로 얽혀 있다”며 “저는 이 지역에서 생활 문제를 직접 찾아내고, 콘텐

츠와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계속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방정치를 보여드리고자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어떻게 자신의 정치를 시민들에게 전달할까 늘 고민한다. 개혁신당 서울시장 대변인, 개혁신당 중앙당에 근무하며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법에 능숙하다.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얼마 전 불렀던 ‘두쫘꾸(두바이쫘득 쿨키)’ 열풍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불확실한 큰 꿈(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는 대신 작은 사치를 즐기는 한국 젊은 세대의 좌절’로 분석한 이 후보의 유튜브 솟츠 영상은 179만회란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진현 후보 프로필
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4번·1998년생
현)개혁신당 서울시장 대변인
현)정치 유튜브 채널

‘이진현의 다른 정치’ 운영
전)개혁신당 중앙당 근무
나에게 지방선거란? ‘새로운 정치’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광진 맛의 거리 상권 금연구역 추진’도 관심을 끈다. 이 후보는 “특히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골목,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 원룸가와 상권이 맞닿은 구간에서는 흡연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과 상권 이미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규제부터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먼저 실제 민원이 반복되는 구간, 담배꽂초가 집중적으로 쌓이는 구간, 보행자 간접흡연 피해가 큰 구간을 조사하고,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후 필요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안내표지와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둔 뒤 실효성 있는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필요하다면 흡연 가능 구역 안내, 흡연부스 설치 검토, 담배꽂초 수거함 정비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저는 이 공약을 통해 광진구의 대표 상권을 ‘담배연기와 꽂초가 쌓이는 거리’가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이 기분 좋게 걷는 거리’로 바꾸고 싶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증시로 자금이탈 차단, 수신 경쟁에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금리 상승

한은, 상호금융 일반대출 금리
지난 2월 4.38%, 3월 4.42% 오름세
상호금융 2월 9.58% 꾸준히 상승
취약차주 금리부담 확대 대비해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고객이 시중은행 대출상담 창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증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이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일부 이어지면서다.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막기 위한 수신 경쟁이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일반대출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 1월 4.35%, 2월 4.38%, 3월 4.42%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협은 경우 일반대출 금리가 지난 1월 4.55%에서 3월 4.66%로 0.11%포인트(p) 상승했다. 새마을금고는 같은 기간 4.40%에서 4.44%로 0.04%p 올랐다.

저축은행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지난 3월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11월(9.19%)부터 올해 2월(9.58%)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출 금리 상승 배경 중 하나로 증시 머니무브에 따른 금융권 수신 경쟁이 꼽힌다. 2금융권의 증시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조달 비용 부담이 확대됐고, 이상황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를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금 이탈이 많아지고, 은행권들이 수신 금리를 올리는 현상이 바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보통 한 3~6개월 텀이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주식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증시 머니무브로 인한 수신 금리 경쟁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렸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권은 시장금리, 정기예탁금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금리에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고려

한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수신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는 단순 구조인 것이다. 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이같은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요구불예금이 많기 때문에 예금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요구불예금 기반이 약해 예금 금리가 오르면 바로 대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종의 대기성 자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을 오시는 분들은 금리 매력도를 보고 예·적금 가입을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 시중은행에 비해 대기성 자금이 없어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 인상 경쟁에 대출 금리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우려된다.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저신용자인 만큼 금리 상승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4년	'25년	1Q(A)	2Q	3Q	4Q	'26년 1Qp(B)	증감 (B-A)	증감률
국내은행	22.2	24.1	6.9	7.8	6.3	3.0	6.7	△0.3	△3.9
일반은행	14.8	16.2	4.2	5.3	4.7	2.1	4.3	0.1	1.6
시중은행	13.0	14.3	3.8	4.7	4.1	1.8	3.7	△0.02	△0.6
지방은행	1.2	1.2	0.3	0.4	0.4	0.1	0.3	0.01	4.0
인터넷은행	0.6	0.7	0.2	0.2	0.2	0.1	0.3	0.1	45.3
특수은행	7.4	7.8	2.7	2.5	1.6	0.9	2.4	△0.3	△12.3

/자료=금융감독원

1분기 은행 순익 6.7조... 전년비 3000억 ↓

금감원, 일반은행 1000억 늘어 4.3조
특수은행 3000억 줄어든 2.4억 기록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00억원 감소한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은행과 시중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특수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은행의 총당기순이익은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000억원 늘어난 4조3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특수은행은 2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3000억원 줄었다.

일반은행 가운데 유형별로는 시중은행이 전년동기보다 1000억원 감소한 3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인터넷은행은 직전 연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방은행은 3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4%로 집계돼 전년 동기(0.71%)보다 0.07%포인트(p) 내렸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68%로 0.89%p 하락했다.

매출 항목별로는 이자이익이 전년동기

/안승진 기자 asj1231@

보다 1조원 늘어난 14조9000억원을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53%에서 1.56%로 0.03%p 올랐고, 이자수익자산 규모는 3393조9000억원에서 3556조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규모는 전년동기보다 7000억원 감소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유가증권관련이익이 적자전환한 영향이다.

지난 1분기 판매비 및 관리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증가한 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는 지난해 1분기과 비교해 1000억원 늘었고, 임차료·연구비 등 물건비도 2000억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총 대손비용은 전년보다 3000억원 줄어든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의 대손비용이 3000억원 줄어든 1조원을 기록해 하락을 견인했고, 특수은행의 대손비용은 4000억원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라며 "건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 및 포용 금융등사회적·공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민·학계 출신 '5파전'

박경훈·이동철·임영진 등 지원
27일까지 심사, 내달 인선 마무리



지난 2010년 이후 여신협회는 관료 출신이 대다수였다. 6명 중 5명이 기획재정부 혹은 금융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지녔으며, 민간 출신 협회장으로는 2016년 취임한 김덕수 전 KB국민카드 대표이사가 유일했다.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7개월간 지내왔던 협회장 인선 작업이 본격에 올랐다. 기존 하미평에 없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사진)이 공모하면서 디크로스'로 떠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회장 추천위원회(회추위)는 지난 19일 오후 6시 차기 회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총 5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는 민·학계 출신 중심으로 구성됐다.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이 지원했다.

기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관료 출신의 서태종 전 한국금융연수원장과 김근익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후보자 공모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협회장 공모를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관료 출신들은 여신금융협회장 선거 후보에 등록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인력에서는 "전 KB금융지주, 신한카드 사장 역시 나서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사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사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 신안군 출신이다. 동대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

경제학박사를 졸업했다. 1990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약 30년간 몸담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우리은행 경영기획단 영업본부장대우, 우리은행 본점 1기영업본부장, 우리은행 글로벌 상무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우리은행 미래전략단 상무, 우리금융지주 경영기획총괄 부사장, 우리금융지주 경영기획총괄 겸 WM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우리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을 지낸 뒤 2021년 우리금융캐피탈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편, 여신금융협회 회추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후보군을 압축해 내달 면접 및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단독 후보를 확정된 뒤 회원사 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인선은 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신한은행, 내일부터 국민성장펀드 판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총 45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영성과를 일반 국민과 함께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투자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판매를 통해 국민의 투자 자금이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성장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확대 흐름에도 동참한다. 아울러 고객이 정책형 투자 상품의 취지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조력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은 신한은행 영업점과 신한 SOL

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에서 우선 부담하는 손실 완충 구조를 갖췄다. 다만 투자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가입 전 상품 구조와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유리 기자 yul117@

공항버스 등 시외·고속버스 23개 노선 신설

국토부,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 연계
전주·군산·완도·해남공항 이용 편리
서울고속버스터미널~평창 노선 마련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한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항버스를 포함한 신규 노선 인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전주·군산·완도·해남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공항버스 노선은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청주공항~김천~구미~동대구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인천공항~해남~완도 ▲화순~장성~인천공항 ▲인천공항~영암~해남 ▲서산~당진~청주공항 ▲부안~서천~인천공항 등 8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평창으로 가는 노선과 유성~경주~포항 노선도 새롭게 운행한다.

고속버스 노선도 확대된다.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노선 등 3개가

새로 생긴다. 그동안 대전 환승이 필요했던 충남권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평택과 창원을 잇는 철도 운행 횟수가 하루 3회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평택~창원 노선도 마련했다.

서울~포항과 서울~서산 노선 일부 운행 편은 중간 정차지를 추가하거나 종점을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정 업체 독점을 막기 위해 신규 노선 운영 기간을 11년(노선버스 차량)으로 제한하고,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1년 이내 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한다. 무단 미운영이나 휴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는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재리 인턴기자 cr56@

KG모빌리티, '뉴 토레스' 시동 편의사양·주행성능 대폭 개선

토레스, 4년여만에 2차 부분변경 최고 170마력... 터레인 모드 탑재 가솔린 모델 2905만원부터 판매

청산 위기에 있었던 KG모빌리티(KGM)의 부활을 이끈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가 4년여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2022년 출시 이후 2차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온 뉴 토레스는 기존 토레스의 정통 SUV 디자인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소비자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하며 상품성을 대폭 개선했다.

KGM은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뉴 토레스 미디어 프리뷰 행사를 열고 2차 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했다.

전면부에는 수평형 버티컬 타입 라디에이터 그릴과 일체형 헤드램프를 적용해 와이드한 인상을 강조했고, 후면부에는 레이어드 구조의 리어 범퍼와 입체적인 스킵드 플레이트를 적용해 오프로더 이미지를 부각했다. 여기에 최대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블랙 엣지 패키지 등을 추가해 세련된 분위기도 더했다.

특히 KGM은 주행 성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조 기능 등의 과도한 디지털화로 불편해진 조작성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미지원 ▲6단 변속기를 적용해 출발 시 울컥임 등을 해결했다.



19일 경기도 고양시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전시된 뉴 토레스 플리즈마 새도우 색상 모델.



뉴 토레스의 실내 모습. /양성운 기자

우선 운전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아테나 2.5'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최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적용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듀얼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비롯해 ▲CE타입 USB 단자(1열 충전 1개/데이터&충전 1개, 2열 충전 2개) ▲스마트키 시스템 ▲운전석 8way 전동시트&전동식 2way 리머서포트 ▲듀얼존 풀오토 에어컨 등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주행성능 향상을 위해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및 터레인 모드를 최초로 적용했다. 뉴 토레스는 1.5 T-GDI 엔진에 아인신 8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해 최고출력 170마력, 최대토크 30.6kg·m, 복합 연비 11.0km/l (2WD, 17인치 타이어 기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일상 주행 구간에서의 가속 응답성과 주행 질감을 향상했다. 뉴 토레스는 4WD 명가 KGM의 기술력을 집약한 터레인 모드를 새롭게 탑재했다. 터레인 모드는 노면 상태에 맞춰 구동력과 조향 성능을 최적화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기능이다.

뉴 토레스의 최대 강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모델 기준 ▲T5 2905만원 ▲T7 3241만원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T5 3205만원 ▲T7 3651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中 '소듐 배터리' 공세... 韓 검증단계 그쳐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험대 올라

중국 CATL이 소듐(나트륨) 이온 배터리 양산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소듐 배터리 시장이 ESS와 중저가 전동차 영역을 중심으로 커질 경우 기술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소듐 이온 배터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시장 조사기관 모르도어인텔리전스는 해당 시장이 2026년 약 5억 4000만 달러(약 8150억 원)에서 2031년 11억 9000만 달러(약 1조 8000억 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6.89%로 추정했다.

소듐 이온 배터리는 리튬 대신 나트륨 이온을 전하 운반체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온이 이동하는 기본 구조 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하다.

소듐이온 배터리는 리튬보다 매장량이 풍부하고 조달이 쉬운 나트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원가와 공급망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 기술로 거론된다. 주행거리와 에너지밀도가 중요한 승용 전기차보다 ESS와 저속·단거리 전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소듐 배터리 연구 개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양산 투자는 아직 초기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난징 공장을 중심으로

로 파일럿 라인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와 SK온은 구체적인 양산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내 업체들의 사업 방향은 소듐 배터리 양산 투자보다 리튬이온 기반 제품 고도화와 ESS 대응,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더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CATL은 소듐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50억 위안(약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40GWh 규모의 소듐 이온 배터리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ESS 업체 하이퍼스트롱에는 3년간 총 60GWh 규모의 소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완성차 업체 칭안 자동차와도 소듐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CATL의 소듐 배터리 확대는 리튬 가격 변동성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내 탄산리튬 가격은 2022년 고점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최근 다시 변동성을 보이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ATL은 LFP에 이어 소듐 배터리까지 제품군을 넓혀 원재료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소듐 배터리를 만들지 못한다기보다는 아직 상용화와 양산 투자 단계로 본격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이 LFP에 이어 소듐 배터리에서도 양산 속도를 높이면 국내 업체들도 리튬이온 고도화만으로는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어 ESS와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가성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퓨처엠,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술 확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

포스코퓨처엠이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술을 확보하며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장 공략에 나선다. 주행거리 확대와 충전 시간 단축이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높은 실리콘 음극재를 앞세워 고부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2028년 양산·공급을 목표로 상용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크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세대 음극재로 꼽힌다.

포스코퓨처엠이 개발한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 대비 4배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계 음극재와 혼합해 사용되는데 포스코퓨처엠은 실리콘 함량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인 테스트에서도 충·방전 1000회 이후 초기 용량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기반 AI 글라스 공개

제미나이 연동... 하반기 출시 예정

삼성전자와 구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I/O 2026'에서 안드로이드 확장현실(XR) 기반 AI 글라스 2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제품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구글이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 위비피커와 협업을 발표한 이후 실제 디자인을 선보인 첫 자리다.

AI 글라스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AI 기능을 보조하는 '컴패니언(companion)' 기기로 설계됐다. 디스플레이는 없고 카메라·마이크·스피커를 내장해 스마트

폰을 꺼내지 않고도 음성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실행한다.

구글 AI '제미나이(Gemini)'와 연동해 길 안내, 주변 카페 추천, 음료 주문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메뉴판이나 표지판 등 사용자가 바라보는 텍스트를 카메라로 인식해 실시간 번역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하며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반영한 실시간 통역도 지원한다. 수신 메시지 요약, 음성 기반 일정 추가, 즉시 촬영 기능도 포함했다.

신규 AI 글라스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은 추후 공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 게이밍 모니터, 글레이 프리 등 차별화"

삼성전자 미디어 브리핑

2026년형 오디세이 신제품 4종 선배 독자기술 기반 프리미엄 전략 강화

"중국 업체들의 저가 중심 게이밍 모니터 공세에 맞서 삼성은 HDR10+ 게이밍과 글레이 프리 등 독자 기술 기반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시장 차별화에 나서겠다."

박동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제품기획 파트장은 2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2026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로컬 업체들의 가성비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삼성만의 차별화 기술을 통해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삼성전자는 게이밍 모니터 업계 최초로 6K 초고해상도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G8'을 포함해 2026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4종을 출시한다.

32형 '오디세이 G8(G80HS)'은 6K(6144×3456) 해상도를 지원해 압도적인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 환경에 따라 ▲6K·165Hz 초고해상도 모드 ▲3K·330Hz 초고주사율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듀얼 모드'를 탑재해 다양한 장르에서 최적의 게임 경험을 지



20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미디어 브리핑에서 박동수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제품기획그룹 프로그 사장은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원한다.

27형 '오디세이 G8(G80HF)'은 5K(5120×2880) 해상도 기반의 정밀한 화질과 최대 180Hz 주사율을 제공한다.

OLED 패널을 탑재한 게이밍 모니터도 출시하며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오디세이 OLED G8(G80SH)'은 27형과 32형으로 출시되며, 4K(3840×2160) 해상도와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빛 반사를 줄이는 '글레이 프리'를 탑재해 게임 몰입도를 높였으며, DisplayPort 2.1과 98W USB-C 충전을 지원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또 이번 신제품에는 'QD-OLED 펜타 탠덤' 기술이 적용돼 패널의 에너지 효율, 수명 및 휘도가 대폭 향상됐다. 4K OLED 모델인 32형 '오디세이 OLED G7(G73SH)'은 최대 165Hz 주사율을 지원하며, 고주사율 모드(FHD·330Hz)를 선택할 수 있는 듀얼 모드를 탑재했다.

아울러 박 파트장은 시장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GPU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면서 초고해상도 게이밍 모니터 시장 형성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면서도 "1000달러 이상 프리미엄 게이밍 시장의 성장률은 가장 가파르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만의 게임룸과 전용 장비를 구축하려는 하이엔드 게이밍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 비중은 3~4년 전 전체 게이밍 매출의 4~5% 수준에서 현재는 13%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술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파트장은 "LCD 분야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소비자 경험과 관련한 기술들을 준비 중"이라며 "마이크로LED 역시 좋은 기술이지만 당분간은 OLED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태연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 발굴해 정책 지표로 만들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100일 간담회서 혁신구상 공개
소상공인 경제·사회·문화 가치 조명
국민체감 성과경영 3대 방침 제시
5대혁신·6대중점과제로 체질 개선
40차례 간담회... “현장중심 경영”

“(소진공)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 박봉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도 많고 (민원인에게)욕도 많이 먹고 봉급은 낮고 (경영)평가(점수)는 낮다. (공단이)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한 인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제5대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소진공

인 이사장은 “난 36년 장사꾼을 했다. 공직에서 보는 현장은 또 달랐다. 장사를 할 땐 내 고통만 보였다. 지금은 아니다. (취임하니)공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존재로만 봐선 안된다. 그래서 실제 가능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즉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를 측정,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매출이나 고용 등 경제지표 위주로 평가돼 왔다. 반면 지역사회 안전망·문화거점·공동체 결속 등 사회·문화적 가치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과정에서 창출하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범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빠르면 올해 9월까지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인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판명함의 뒷면에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시다’를 새기고 다닌다. 지난 100일의 고민을 담아 ▲국민체감 성과경영 ▲수요기반 현장경영 ▲지속가능 성장경영을 중심으로 한 ‘3대 경영방침’을 세웠다. 5대 기관 혁신 운영 과제와 6대 중점 사업 과제가 포함된 소상공인과 소진공의 ‘가치동행 프로젝트’도 선포했다.

인 이사장은 “소진공의 사업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 한다. 목적에 맞는 과정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도 중요하다. 사업이 끝난 후엔 매출이 늘었느냐, 자생력이 올라갔느냐 등 성과물도 반드시 남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 연구 및 홍보’

는 5대 기관혁신과제 중 1순위에 뒀다.

이외에 ▲현장중심 정책설계 및 참여형 사업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로 누구나 서비스 이용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조직 신설, CCM(고객중심경영), ISO 인증 등 ESG 경영도 5대 과제에 포함됐다.

인 이사장은 취임 후 3개월 여 동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찾아 40회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점검했다. 22일에는 지난 4월 말 골목형상점가로 처음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41회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현장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소통마루’를 출범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체계를 강화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홍대에 국내 최대 ‘스타트업 허브’ 문 열어

중기부,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
AI·뷰티·콘텐츠 스타트업 입주
韓 “세계 잇는 혁신 플랫폼 지원”

서울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허브인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이 문을 열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전 서울 홍대 인근에 조성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SVC Seoul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과 국내의 기업, 대학, 투자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성한 창업 거점이다. 특히 젊은 창의성과

글로벌 문화가 공존하는 홍대 지역에 위치해 인공지능(AI), 뷰티·패션, 콘텐츠·문화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SVC Seoul에는 현재 해외 진출 가능성과 혁신성을 갖춘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엔틀러(Antler), 쇼록 파트너스(Shorooq Partners) 등 해외 투자사와의 투자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기업 간 협업, 투자 연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기업 성장 지원), 해외 진출 지원, 교류 행사 등을

상시 운영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혁신은 연결의 힘에서 시작된다”며 “SVC Seoul이 사람과 기업, 기술과 투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창의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이 결합된다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며 “SVC Seoul이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LG이노텍 데이터·센싱기술 결합 자율주행 고도화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LG이노텍과 협력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고정밀 센싱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일 LG이노텍과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 수집 체계와 LG이노텍의 고정밀 센싱 기술을 결합해 대규모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LG이노텍은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 모듈을 통합한 자율주행 센싱 솔루션 개발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학습, 배포 과정을 자동화한 ‘인공지능 데이터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국수·냉면 대기업 진입 5년 더 제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의결
2031년 5월까지 인수·개시·확장 제한

국수와 냉면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 대기업은 2031년 5월 26일까지 국수·냉면 제조 분야에서 새로 사업체를 열거나 인수, 기존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수·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도입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5년간 해당 업종에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활동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다.

올해 심의위원회에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대상 업종 범위를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각각 한정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가점간 편식(HMR) 등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등의 출하량을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되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 상표 부착(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무제한 승인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등의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직접생산 110%, 중소기업 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호텔 스위트룸을 집 안으로”

비렉스 스위트 호텔 프레임 선택
호텔형 월패널·투매트리스 구조 적용
조명·수납·충전 기능으로 실용성 강화

수면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호텔의 편안함, 안락함을 집에서 누리려는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면서 ‘호텔형 침실 인테리어’가 수면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호텔식 프레임은 시각적 만족감과 실용성을 모두 제공하며 후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비렉스(BEREX) 스위트 호텔 프레임’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다. 호텔 스타일로 벽면을 채우는 월패널과 매트리스를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투매트리스’ 구조를 통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뿐 아니라 최적의 사용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박스 스프링 구조의 파운데이션이 상단의 매트리스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투매트리스’ 구조로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한다. 매트리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구현한다.

비렉스 스위트 호텔 프레임은 월패널을 싱글(1개), 듀얼(2개), 트리플(3개)



코웨이 비렉스 스위트 호텔 프레임 ‘뉴트럴 베이지 트리플 패널’

등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해 호텔형 침실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침대 양 옆이나 트윈 베드 사이 등 원하는 위치에 월패널을 배치할 수 있어 공간과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차분한 패브릭이 적용된 멀티패널은 선반형 구조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할 수 있으며, 월넛 컬러의 우드 패널은 서랍형 구조로 주변 물건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다. 두 패널 모두 3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탑재해 공간을 은은하게 밝혀주며, 하단의 충전포트를 통해 전자기기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쿠션형 헤드보드로 볼륨감과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목재의 깊이 있는 색상과 질감을 재현한 우드 몰딩 마감의 파운데이션 하부로 호텔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김승호 기자

NC AI, 생성형 AI ‘배키 커머스’ 공개

상품사진 기반 콘텐츠 제작 자동화

산업특화 AI 전문기업 NC AI가 상품 사진 한 장만으로 커머스 콘텐츠 제작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생성형 AI 솔루션 ‘배키 커머스’를 20일 공개했다. 배키 커머스는 별도의 전문 디자인 툴 없이 클릭과 챗봇 중심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세페이지, 배너, 썸네일, 홍보

영상 등을 자동 제작하는 서비스다. NC AI는 이를 통해 기존 커머스 콘텐츠 제작 환경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NC AI는 패션 분야를 시작으로 뷰티, 식품, 건강, 전자기기 등 산업별 특화 AI 모델을 구축해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목동에 깃드는 하이엔드 주거의 새 물결

목동윤슬자이 GS건설

오목교역 인근 KT부지에 651실 규모 개발

GS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목동윤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윤슬'은 햇빛과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삶의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담았다.

목동윤슬자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양천구 목동 924, 924-3, 5)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이다.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4㎡ 총 651실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 프로젝트다. 타입별로는 ▲115㎡A 118실 ▲114㎡

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 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4㎡AD 10실 ▲202㎡BD 9실 ▲199㎡CD 8실 등이다. 모든 호실에는 발코니가 설치되며, 일부 호실은 복층형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목동윤슬자이는 아파트의 실용성과 하이엔드의 고급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모델인 '하이퍼트(Hypert)'를 표방한다. '조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하이퍼(Hyper)'와 '아파트(Apartment)'의 합성어다.

단지는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해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좋으며,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목동은 서울을 대표하는 학군지로 단지 인근에서



정초,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위치하고, 입시 학원가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메가박스 등 쇼핑·문화시설을 비롯해 이대목동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까이 위치했다.

목동윤슬자이 단지 저층부 외관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이 적용된다.

건본주택은 사업지 인근 양천구 목동에 마련된다.

도보 통학권 갖춘 동래권 공원형 대단지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 대우건설

산책로·아쿠아가든·커뮤니티 라운지 등 조성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 들어서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8층, 12개 동, 총 148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4~84㎡, 47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74㎡ 20가구 ▲76㎡ 15가구 ▲84㎡A 439가구 등이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안락동 일대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 외관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과 웅장한 문주를 적용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높였고, 일부 동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된 옥상 구조물과 측벽 디자인을 적용해 야간 스카이라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부 평면은 다양한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설계했다. 전용 74㎡A는 공간 활용성이 높은 3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전용 76㎡A는 주방에 아일랜드 장을 더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한 타워형 구조를 채택했다. 주력 평형인 타워형 84㎡A 타입은 '이면 개방형'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채광,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안방뿐 아니라 침실에도 드레스룸을 설계해 수납 효율을 강화했다.

전체 대지의 약 37%를 할애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했으며, 단지 중앙의 입체형 커뮤니티 라운지를 비롯해 순환산책로, 아쿠아가든, 힐링포레스트 등 다채로운 휴게 공간이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필라테스룸, 사우나 등 운동·휴식시설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와 독서실·키즈카페·공유 오피스·키즈도서관 등 학습 및 문화시설이 마련된다.

단지 인근에 해화초, 충렬초·중고, 해화여중·여고 등 명문 학교들이 밀집해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건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30년 3월이다.

한강변·더블역세권 갖춘 노량진뉴타운 입지

아크로 리버스카이 DL이앤씨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여의도 접근성 우수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일원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아크로 리버스카이'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285가구다. 타입별로는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이다.

아크로 리버스카이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정

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9200여가구의 신형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단지는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으로는 영화초교와 연접한 '조품아' 단지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송의여중, 송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는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이마트 여의도점, 이마트 영등포점, 더현대 서울, IFC몰,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보라매



병원 등 대형 병원 접근성도 좋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전용 44·51㎡의 경우 소형 타입임에도 팬트리를 마련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전용 59㎡A 타입은 4베이(Bay) 판상형 구조 설계로 맞통풍이 가능하다. 공간에 취향을 더한 인테리어 솔루션 '디 셀렉션(D Selection)'을 적용해 고객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안한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 마련된다.

서해선 역세권에 녹지·교육 여건 두루 갖춰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마트·스타필드시티 등 생활 인프라 인접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시흥대야역 인근에서 '힐스테이트 시흥더클래스'를 선보인다.

단지는 경기 시흥시 대야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7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4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74㎡ 24가구 ▲84㎡A 377가구 ▲84㎡B 29가구 등이다.

단지는 서해선 시흥대야역까지 약 250m로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 지하철 1·7·5·9호선으로 환승이 수월해 여의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시흥대야역에는

서울 목동역까지 연결되는 신구로선(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이 계획돼 있다.

단지 앞 버스 정류장을 통해 시흥 시내를 물론, 부천, 안산, 안양 등 인근 지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며, 차량 이용 시에는 인근 시흥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로는 인근에 롯데마트와 스타필드시티, CGV,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신천연합병원 등 다양한 쇼핑·여가·의료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부천, 광명 생활권과 맞닿아 있어 이미 형성된 대형 상업시설과 다채로운 문화 인프라를 이요할 수 있다. 소래산 산림욕장, 은계호수공원, 인천대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대야초, 대흥중, 소래고 등이 가까이 위치했으며, 인접한 은계지구 내에는 시흥 최초 과학계열 특수목적



고인 시흥과학고가 2029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전 세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풍부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했다.

커뮤니티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GX룸 등 운동 시설은 물론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등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건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생활 편한 분양 소식 청약통장

건설사들이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히 수도권 재개발 단지와 신도시, 신시장에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노량진 등 핵심 입지에서 신축 아파트의 관심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인천 검단, 김포, 부천 등에서 아파트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나온다는 소식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가 들어선다.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가 들어선다.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가 들어선다.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에서 실거주 여건을 모두 갖춘 단지가 들어선다.



안 입지마다 익 잇따라 꺼내볼까”

두고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물량이 동시에 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목축 아파트가 나온다. 실수요자들의 단신도시와 규제 지정을 피한 경기. 부산과 천안 등에서도 대규모 브치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 측면이 많다. 분양가상한제가 적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5월에 양 물량이 늘었다”며 “비교적 빠른 규모, 입지, 가격 등 좋은 조건을 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불당 신·구도심 생활권 함께 누리는 백석5지구

백석시그니처자이 GS건설

도보 통학권·대기업 배후에 스카이라운지까지

GS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백석5지구에 ‘백석시그니처자이’를 내놓는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동으로 1블록 854가구, 2블록 320가구 총 117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 50가구 ▲63㎡ 27가구 ▲74㎡ 196가구 ▲84㎡ 819가구 ▲99㎡ 78가구 ▲115㎡ 4가구 등이다.

단지는 불당동과 성정동, 두정동을 잇는 생활권에 위치해 기존 도심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했으며, 천안시청과 갤럭시백화점, 천안종합운동장 등 행정·문화시설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번영로와 백석로 등 주요 도로 접근이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진입도 편리하다. KTX 천안아산역이 가까워 광역 이동도 수월하다.

한들초·환서초·환서중이 도보 통학권에 있으며, 백석동 일대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삼성 SDI·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천안에 위치한 주요 대기업이 단지 인근에 위치했다.

백석시그니처자이는 전 가구 4~4.5베이 맞춤형 평



면을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타입에 따라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늘렸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언’에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카페라운지, 선큰광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101동 최상층인 28층에는 스카이라운지도 조성될 계획이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하는 오는 2029년 예정이다.

수변 산책로 갖춘 검단신도시 워라밸빌리지

더샵 검단레이크파크 포스코이앤씨

대규모 조경과 3000평대 커뮤니티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첫 번째 더샵 브랜드 단지인 ‘더샵 검단레이크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인천 검단신도시 22·23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29층, 총 2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85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민영주택이다. 특히 전용 59㎡ 타입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1337세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와 소형 평형 중심의 실수요 트렌드를 반영했다.

단지는 인천 2호선 안정역, 인천 1호선 검단호수공

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예타 통과)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계획)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예정돼 있다.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와 함께 검단신도시 5개 특화사업 중 하나인 ‘워라밸빌리지’ 내 중심 입지다. 스마트워크센터와 통합보육센터를 중심으로 공원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생활체육·생활문화 SOC센터 등이 함께 조성되는 자족형 복합 생활권에 자리한다.

설계는 동 간 거리와 내부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한 배치 전략을 바탕으로 네이처테라스·페르마타가든·블루엣가든 등 대규모 조경 공간을 조성하며 쾌적한 단지 환경을 구현했다.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주변에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고, 나진포천과 연계한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마련해 수변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갖췄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약 1.58대 규모로 확보했다.

내부는 실거주 편의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알파룸과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공간을 기본 적용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총 3000평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GX룸, 사우나, 실내체육관 등 운동 시설을 비롯해 패밀리 라이브러리, 에듀&비즈니스라운지, 키즈존, 게스트하우스, 다이닝 라운지 등을 갖춘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일원에 마련된다.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갖춘 풍무역세권

호반씨밋 풍무II 호반건설

공동주택 961가구·오피스텔 98실 함께 조성

호반건설은 김포풍무역세권에 ‘호반씨밋 풍무II’를 내놓는다.

호반씨밋 풍무II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조성된다. 공동주택은 지하 3층~지상 38층, 5개동, 9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발코니형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26층, 1개동, 98실 규모다.

공동주택은 타입별로 ▲59㎡A 113가구 ▲84㎡A 260가구 ▲84㎡B 147가구 ▲84㎡C 257가구 ▲113㎡A 180가구 ▲182㎡A 2가구 ▲182㎡B 1가구 ▲182㎡C 1가구 등을 공급한다. 발코니형 오피스텔은 전용 ▲

84㎡O 단일 타입 98실이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부터 여유로운 대형까지 다양하다.

김포풍무역세권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8만㎡ 면적에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다. 풍무역 일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과 상업·업무·의료·교육시설 등이 복합된 미니신도시급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호반씨밋 풍무II가 조성되는 C5블록은 김포풍무역세권에서도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 가장 가까운 초역세권 주택용지다. 풍무역은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김포골드라인과 5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풍무 일대와 검단을 거쳐 김포한강2지구까지 25.8km 구간에 9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김포한강로와 김포대로를 통해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하며, 풍곡IC(2026년 예정)와 영사정IC(2028년 목표) 등 도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풍무역 및 사우역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김포시 사우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육아특화 설계 갖춘 부천 역곡 신혼희망타운

역곡지구 하우스토리 남광토건

어린이집·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 등 갖춰

남광토건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인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를 내놓는다. 단지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역곡지구 하우스토리는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곡지구 A-2BL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 데크 3개층~지상 25층 규모, 총 1464세대 규모다.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은 976세대다. 전용면적은 55㎡ 단일 평형(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7호선 까치울역과 1호선 역곡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를 비롯해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국도 46호선이 인접해 수도권 전역으로 연결된다. 단지 바로 앞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부지(예정)가 계획돼 있으며, 역곡초·중·고교 등 학군이 인접했다. 홈플러스와 역곡상상시장 등 기존 상권은 물론 까치울역·역곡역 일대 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천성모병원과 CGV, 부천 종합운동장 등 의료·문화·여가 시설도 인접했다.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만큼 육아 친화형으로 설계했다. 어린이집과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한 실내 놀이터 등 육아 특화 시설을 갖춰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공동육아방, 키즈스테이션 등 육아 특화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단지 내에는 풍부한 조경 공간이 조성되고 안전한 보행 동선이 적용돼 쾌적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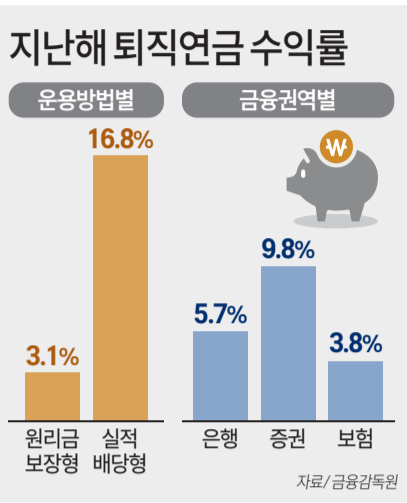


공공분양 주택임에도 민간참여 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부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등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돼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주변 신축 단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를 비롯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실적배당형 투자하면 수익률 17%

고용부-금융원 '퇴직연금 투자 백서' 실적배당형 상품, 3년 만에 2배 ↑ 원리금보장형 75%... 지속 감소세 전체 연간 수익률 6.47% '최고치' 증권사 수익률 가장 높아... 9.79%



퇴직연금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 강세와 함께 ETF(상장지수펀드),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퇴직연금의 투자 패러다임이 예금 중심에서 자산배분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31조7000억원)보다 69조7000억원(16.1%) 늘어나며 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IRP 적립금은 130조9000억원으로 1년 새 32.6% 증가했다. 확정기여형(DC)과 기업형 IRP를 합친 적립금은 141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와 IRP 비중은 전체의 54.3%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투자 방식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전체 적립금의 24.6%(123조3000억원)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원리금보장형은 여전히 378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지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ETF가 퇴직연금의 대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금액은 4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1.9% 증가했다. 실적배당형 자산의 39.6%를 차지하며 사실상 핵심 투자 수단으로 부상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잔액은 1년 만에 317.6% 급증했다.

수익률도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09%에 그친 반면 실적배당형은 16.8%를 기록해 5배 이상 높은 성과를 냈다. TDF의 경우 13.7%의 수익률을 올리며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금융권역별로는 증권사가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지난해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9.79%로 은행(5.70%), 생명보험(4.53%), 손해보험(3.81%)을 크게 앞섰다. 실적배당형 비중이 45.2%로 다른 권역보다 높았던 것이 주요했다.

수익률 격차는 운용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상위 10% 가입자는 적립금의 84%를 실적배당형에 투자해 평균 19.5%의 수익률을 거뒀다. 반면 하위 10%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74%에 달했고 수익률은 0.5%에 그쳤다. 금융원은 "자산 운용에 실패했다기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수익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국민연금(19.9%)이나 미국·일본 주요 연기금(각각 12%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이 75.6%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후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과 투자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상품 선택부터 인출 전라까지 실제 사례 중심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운용 현황을 공개해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한투證, 금융상품 잔고 100조

지난해 연간 17조 3700억 순유입 글로벌 금융사와 차별화 상품 선택 채권·발행어음·IMA도 핵심 경쟁력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 100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투자상품과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앞세워 개인 자산관리 시장에서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한 결과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기준 개인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41조2000억원이던 잔고는 2023년 53조4000억원, 2024년 67조7000억원, 2025년 85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고객 자금 유입 속도도 빨라졌다. 2022년 이후 매일 평균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연간 17조 3700억원이 순유입됐다. 하루 평균 약 430억원의 자금이 한국투자증권 금융상품으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고객도 빠르게 늘었다. 개인 금융상품 신규 고객 수는 2023년 8만5766명에서 2024년 13만2322명, 2025년 20만2502명으로 증가했다. 고객 구성은 20대 이하부터 70대 이상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특정 연령층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시장 변화에 맞춘 상품 공급 전략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칼리일, JP모건, 맨그룹, 캐피탈그룹, 얼라이언스벤처스, 뮤니크리 등 글로벌 금융사와 협업해 월지급식 상품과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였다. 관련 상품의 누적 판매액은 올해 4월 말 기준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손익차등형 상품은 고객이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하고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손실이 발생하면 계열사가 먼저 부담하고, 수익이 나면 고객에게 이익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2025년 까지 총 13개 공모펀드가 설정됐으며, 이 가운데 11개 펀드가 목표 수익률 15~20%를 달성했다.

채권과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도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금리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외 채권 공급을 확대하고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했으며,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단기 자금 관리부터 중장기 투자까지 아우르는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도 병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프라이빗뱅크(PB)를 단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의 투자 목적과 생애주기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로 육성하고 있다. 고객 성과와 관리 역량을 평가 지표에 반영해 장기적인 자산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성환 사장은 "이번 100조원 돌파는 자산 규모 확대를 넘어 고객의 신뢰가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리테일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폐휴대폰 수거·자원화 수익금 소외계층 기부

NH투자증권은 범농협 환경 분야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내(NH)서랍 속 자원순환 캠페인'을 본격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사무실 서랍이나 가정 내에 방치된 폐휴대폰, 통신장비, 전자기기 등 폐전기·전자제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분리배출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캠페인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5월 중분사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불용 처리된 핀패드, IP폰, 휴대폰 및 통신장비 등 총 300여 대의 전자제품을 우선적으로 수거해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사내 불용품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폐가전제품도 캠페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배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전자제품은 E순환거버넌스의 친환경 현대화 시설을 거쳐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자원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아동복지재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진행된 범농협 자원순환 캠페인에는 총 29개 계열사가 참여해 폐전자제품 67톤을 수거했다. /허정윤 기자

내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정부, 투자금 일부 손실 먼저 부담 원금 미보장·5년간 자금 묶임 따져야

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적용된다. 다만 최근 3년(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판매 기간은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총 판매 물량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별도 배정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고려해 판매 첫 주(5월 22일~28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가입을 위해서는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ISA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판매 초기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에게 계좌 개설과 증명서 발급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안내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상품이 정책형 펀드이지만 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일부 위험을 흡수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코스피는 전 거래일(7271.66)보다 62.71포인트(0.86%) 내린 7208.95,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84.36)보다 28.29포인트(2.61%) 하락한 1056.07에 마감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뉴스IS

2년 7개월 만에 반대매매 최고치 기록

금액 917억... 미수금비 비중 6%

"제 계좌에 있는 돈보다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어 매수했다니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주식 커뮤니티엔 빛을 내 주식을 샀다가 강제로 주식이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는 고민 글이 올라오고 있다. 코스피 상승장에 '빛투(빛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제때 계좌에 현금을 채워 넣지 못했거나 빛으로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

자 증권사들이 주식을 되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한다는 것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반대매매금액은 917억원으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던 2023년 10월24일(5487억원)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 비중 역시 6.0%로, 지난 3월 5일(6.5%)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높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6·3 지방선거, 7·17 제헌절 휴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6·3 지방선거일과 최근 공휴일로 지정된 7월 17일 제헌절에 휴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을 포함한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야간 포함), 석유·금 등의 일반상

품시장이 두 날짜에 개장하지 않는다.

다만 휴장 전날인 6월 29일과 7월 16일 각 18시에 열리는 야간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시된다.

프리애프터 마켓을 운영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도 각각 휴장한다. /신하은 기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햐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 폐기물 분야 등 환경·에너지 사업 두각

환경과학원 숙련도시험 '만족' 판정
특성화대학원 사업... 전문인력 양성
송병익 사장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질·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자원순환 등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등 '환경+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고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질·폐기물 숙련도시험에서 최근 심사항목 전반에 걸쳐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폐자원 에너지화·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 수질·폐기물 분야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판정을 받았다. 또 기관평가에서 '적합'을 기록했다.

이 숙련도시험에서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성 검증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수질 분야와 폐기물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과학원의 평가에서 '만족' 평가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4일 '2026년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받은 항목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수질 분야 13개 전 항목과 카드뮴, 납, 구리, 크롬 등 폐기물 분야 6개 전 항목이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 시설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왔다. 침출수·폐기물·악취 등 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업무도 자체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반입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환경과학원 주관 악취 분야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해, 환경분석 전 분야의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

는 계획이다.

공사는 자원순환 부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1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2026년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부터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참여대학 연구진과 현장 중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존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확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특성화대학원 교수·학생과 참여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개 참여대학의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발표 및 산학협력·인재양성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같은 날 '202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 분과 토론회도 열렸다. 패널 토의 참가자들은, 수도권 광역민관협력체계 기반으로 '전처리-물질회수-에너지회수'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주도 복합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병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aT, 내부통제 등 정부 평가 최고등급 이어져

행안부 공공데이터 운영 최고등급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상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내부통제 체계·조직투명성 제고 노력'이 올해 감사원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aT 내 감사실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 엄정 처분을 통해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감사원의 해당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국가감사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전경.

계 확립 및 내부통제 내실화에 목적을 둔다.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비롯해,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D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전종화 aT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달

성은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는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는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 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았다.

aT는 해당 평가에서 97.04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기관 평균점수 67.6점을 훌쩍 넘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갯생 인턴십' 참가자 모집

미래농업에 대한 현장체험 기회가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유망분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른바 '갯생 인턴십'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청년인턴 24명을 선발한다.

갯생 인턴십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가치갯생)과 연계해 마련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직무체험 및 농촌 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신청은 가치갯생 캠페인의 공식누리집에서 6월24일까지 가능하다.

서류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7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기업별로 마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유조선 1척 호르무즈 통과 허가"

이란, 1척에 한해 통항가능 입장 밝혀
페르시아만 일대에 정박 중이던 한국국적의 유조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았다.

20일 오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8일 저녁(한국시간) 해당 선박 1척에 한해 호르무즈 통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 공관을 통해 밝혀 왔다.

이에 이 내용을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선사가, 내부 협의를 거쳐 통항 개시를 결정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 선박은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운항을 재개했다. 해수부는 "이란이 제시한 통항로를 따라 20일 중 오만만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과 조율하여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유조선이 "한국

해운사HMM의 유니버설위너호로, 기착지는 울산"이라고 보도했다.

이매체는 "유니버설위너호는 쿠웨이트산 원유를 싣고 있다"며 "20일(현지시간) 오전 이란 라라크섬 남쪽 이란이 승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항로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중국국적의 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유조선은 오션탈리호와 위안구이양호이다. 오션탈리호에는 카타르 및 이라크산 원유가 선적돼 있다. 목적지는 중국 취안저우항이다. 오션탈리호의 경우엔 위치 정보 송출이 끊겼다.

이 같은 외신보도 직후,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달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피격된 나무호 역시 해운사HMM 소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자동차 수출·생산 '주춤'... 내수판매 '반등'

산업부 4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

올해 4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과 신차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 확대로 인해 수출과 생산에서 동시에 주춤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수출과 내수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61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24.5만 대(24만 499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자동차 생산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2만 대에 머물렀다. 한국지엠(+15.4%)과 KG모빌리티(+8.6%) 등이 신차 효과로 선전했으나,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생산(-16.2%), 내수(-19.9%), 수출(-1.9%) 모

두 꺾이는 '트리플 부진'을 겪으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산업부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생산차질은 6월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수출 실적에서는 극명한 희비가 엇갈렸다. 북미(+2.4%)를 비롯해 신흥 시장인 중남미(+23.7%)와 오세아니아(+20.1%)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견고한 국산차 수요를 증명했다. 반면, 중동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38.7%나 수출이 급감했고, 아시아(-31.7%)와 EU(-13.1%)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도 부진했다.

수출·생산의 둔화 속에서도 국내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7% 소폭 증가한 15.2만 대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국산차 판매는 9.1% 감소했으나, 수입차 판매가 테슬라(+811.5%)와 중국 BYD(+272.6%) 등 전기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54.7% 급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민권익위 "음주측정 거부자 면허취소 적법"

"정당한 음주측정 절차 협조해야"

음주운전의심을 받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정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라는 등 음주운전 징후를 보이자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불만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리고 법령에서 음주 측정 불응 시 예외 없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CJ그룹, 美 ‘하우스 오브 CJ’ 운영... ‘두루미·자리’ 최초 공개

〈K-스트리트푸드 브랜드〉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텍사스 PGA 대회장 중심부 자리
식품·뷰티·엔터 등 복합경험 제공
골프 팬 점점 확대... 북미진출 박차



CJ그룹 통합 체험관 'HOUSE OF CJ'

/CJ그룹

CJ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규대회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통해 K-라이프스타일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스포츠 후원을 넘어 그룹의 핵심 사업인 식품, 뷰티, 엔터테인먼트를 한데 모은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CJ그룹은 21일부터 24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그룹 통합 체험관 '하우스 오브 CJ(HOUSE OF CJ)'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하우스 오브 CJ'는 전년 대비 약 20% 확장된 750㎡(약 227평) 규모로 조성됐다. 대회장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 공간에는 비비고를 비롯해 올리브영, 푸레쥬르, SCREENX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핵심 브랜드가 총출동해 K-푸드, K-뷰티, K-엔터테인먼트를 한 공간에서 선보인다.

올해 CJ의 마케팅 전략은 단순 시시·시연 중심의 기존 방식을 탈피해 관람객

이 브랜드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증강현실(AR) 인터랙션, 디지털 챗봇, 인터랙티브 포토존 등 몰입형 디지털 콘텐츠를 대거 포진시켜 현지 팬들의 체류 시간과 브랜드 몰입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비비고 제품 전시와 함께 틱톡 챗봇, 포토월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만두 패키지와 다양한 굿즈를 제공한다. CJ푸드빌의 푸레쥬르는 갖가지 베이커리와 프리미엄 커피를 선보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K-스트리트푸드 신규 브랜드인 '두루미'도 최초로 공개해 글로벌 시장의 반응을 타진한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텍사스 현지 기후를 겨냥해 CJ올리브영은 선케어 제품 위주의 'K-뷰티 체험존'을 운영한다. 부스 방문객에게는 마스크팩과 OY 그린캡 등을 선착순으로 증정해 K-뷰티의 우수한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K-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마련된다. CJ ENM은 글로벌 K-POP 콘텐츠 플랫폼 '엠넷플러스' 부스를 통해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송출하며 팬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CJ 4DPLEX는 3면 스크린 기술이 적용된 SCREENX 부스를 설치해 '토이스토리5',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등 글로벌 기대작의

예고편을 상영, 압도적인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올 하반기 미국 공식 출시를 앞둔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자리(jari)'도 이번 무대에서 베일을 벗는다. CJ제일제당은 현대적인 한국 각테일 문화를 담아낸 네가지 시그니처 각테일 시음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자산가 및 골프 팬들에게 K-주류의 새로운 매력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이번 행사는 CJ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K-라이프스타일'의 영토를 넓히고, 브랜드 가치를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푸드,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이 '하우스 오브 CJ'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총집결하면서 계열사 간 크로스 마케팅 시너지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CJ그룹 관계자는 "하우스 오브 CJ는 골프 팬들이 스포츠를 넘어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더 CJ컵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물론 현지 팬들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

신제품



롯데웰푸드 메이플스토리 과자 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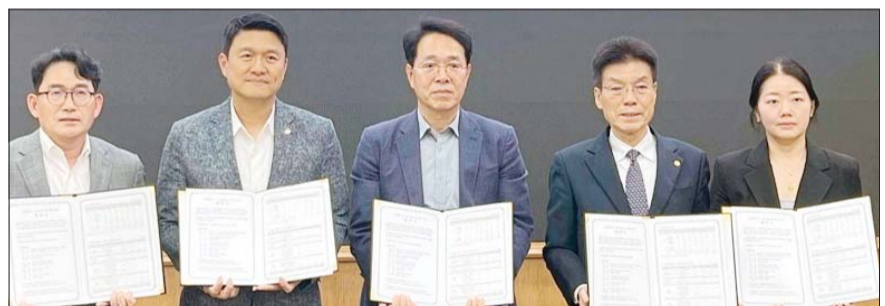
롯데웰푸드는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와의 협업한 과자 7종(사진)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오랜 기간 폭넓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아온 게임 IP를 활용해 기존 브랜드에 신선함을 더하고, 게임 친화적 소비 성향이 강한 젊고 세대를 겨냥했다.

출시 제품은 ▲카스타드 피넛버터맛 ▲카스타드 순수우유맛 ▲명가 찰떡과이 돼지바맛 ▲꼬깔콘 메이플버터맛 2종 ▲짱셔요 키위애플 ▲ZERO 쿠앤크 샌드 스트로베리&밀크맛 등이다. 각 제품에는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와 세계관 감성을 반영한 패키지를 적용하고, 익숙한 브랜드에 변주를 준 플레이버를 더했다.

카스타드 2종은 각각 피넛버터 크림과 밀크 크림을 강조해 디저트형 간식 수요를 겨냥했다. '얼떡(얼려떡기)' 트렌드를 고려한 식감 제안도 담았다. 명가 찰떡과이 돼지바맛은 쿠키 분태와 딸기 크림 조합으로 돼지바의 풍미를 구현했고, 꼬깔콘 메이플버터맛은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과 버터의 고소함을 결합했다. 슬라임 캐릭터를 형상화한 젤리 '짱셔요 키위애플', 무설탕·무당류·콘센트의 ZERO 쿠앤크 샌드 변주 제품도 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패키지 안쪽에 인쇄된 게임 아이템 쿠폰이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후 쿠폰을 게임 내에 등록해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제품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왼쪽 두번째부터 김장훈 롯데온 상품부문 상무와 한권희 충남경제진흥원장 등이 19일 충남 천안시 백석대학교에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온

롯데온,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담스퀘어 충남 유치' 업무협약

롯데온이 지난 19일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 백석대학교, 카페24와 함께 '소담스퀘어 충남 유치 및 디지털 전환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반의 충남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사는 10월 천안시에 개소되는 소담

스퀘어 충남 지역 거점의 중소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디지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온은 충남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운영을 비롯해 롯데온 내 기획전 운영, 마케팅 지원 등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돕는 역할을 맡는다.

/김서현 기자 seoh@

CU “막걸리·각테일 직접 제조해보세요”

막걸리 DIY세트·홈카테일 키트 선봬

CU가 막걸리와 각테일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전통주 상품을 선보였다.

CU는 이달 23일 '나만의 막걸리 DIY 세트'와 '복분자 홈카테일 키트' 2종을 출시한다.

나만의 막걸리 DIY세트는 유산균 막걸리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DIY 키트다. 해당 상품은 발효 용기, 쌀가루, 누룩, 유산균, 효모, 감미료 등을 함께 구성해 별도의 준비 없이 약 6일이면 집에서 간편하게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 물

의 양에 따라 걸쭉하고 진한 프리미엄 막걸리 스타일부터 가볍고 청량한 막걸리 하이볼 스타일까지 구현 가능하다.

복분자 홈카테일 키트는 집에서 손쉽게 복분자 각테일을 제조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다. 셰이커, 지거, 머들러 등 홈카테일 제조 도구와 명차 복분자(300ml) 2병으로 구성됐다. 패키지 뒷면에는 복분자 하이볼과 복분자 진토니 제조 레시피를 수록해 초보자도 쉽게 홈카테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U는 향후 포켓CU를 통한 예약발주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구매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 '클라우드' 리뉴얼

라거 특유의 밸런스·목넘김 개선 '맥주 본연의 맛' 브랜드 정체성 강화

국내 올몰트 라거 시장의 정통성을 내세워온 '클라우드'가 맛과 디자인을 동시에 손봤다.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그라비티' 공법이라는 브랜드 핵심을 유지한 채 단맛과 쓴맛의 균형을 재조정해 한층 매끄러운 음용감을 구현하고 패키지 시인성도 강화했다.

롯데칠성음료의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Kloud)가 레시피와 패키지를 리뉴얼해 새롭게 출시된다. 이번 리뉴얼은 '맥주 본연의 맛'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라거 특유의 밸런스와 목넘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리뉴얼된 클라우드는 향과 아로마, 바디감 등 미각 요소 전반에서 단맛과 쓴맛의 비율을 재조정했다. 기존의 진하고 풍부한 풍미는 유지하되 잔향과 쓴맛을 정교하게 다듬어 음용 부담을 낮추고, 보다 부드러운 목넘김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는 독일 정통 맥주 제조방식인 '오리지널 그라비티(Original Gravit



클라우드 리뉴얼 패키지.

/롯데칠성음료

y) 공법을 적용한 올몰트 맥주다. 물로 희석하지 않은 맥주 발효원액 그대로를 제품화해 발효 당시의 향과 풍미, 알코올 도수(5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캐나다산 프리미엄 맥아 100%를 사용했으며, 독일과 체코산 홉을 여러 단계에 나눠 투입하는 '멀티 호핑 시스템'을 통해 깊고 긴 여운의 풍미를 구현했다.

패키지 역시 변화했다. 골드와 화이트 톤을 조합한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로고의 시인성을 높여 브랜드 헤리티지를 직관적으로 드러냈다.

/신원선 기자

다이소몰, 우리카드 청구할인 이벤트

3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혜택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에서 '우리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일부터 6월 19일 한 달 동안 진행되며, 다이소몰에서 우리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청구할

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직접 결제 시에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다이소몰은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로 택배배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매장픽업, 오늘배송 등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김서현 기자

한신포차 '식사형 안주' 신메뉴 8종

한신포차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식사형 안주' 강화에 나섰다.

한신포차는 20일 식사 대응과 안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신메뉴 8종을 전국 매장(일부 매장 제외)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메뉴 구성의 핵심은 '든든함'이다. 먼저 한신순살닭볶음탕은 한신닭발 특유의 매운맛에 사골 육수를 더하고 감자와 떡사리를 푸짐하게 담아 식사로도 손색없게 설계됐다. 직화순살닭구이와 불수육은 각각 닭다리살과 삼겹수육을 활용해 안주와 식사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고, 된장술밥은 구수한 된장 베이스에 밥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볍게 곁들이기 좋은 안주 메뉴도 보강했다. 기존 대표 메뉴인 한신닭발에 청양고추와 사천고추를 더해 매운맛을 한층 끌어올린 '핫레드한신닭발'을 비롯해 오징어부추전&초무침, 콘치즈불닭볶음면, 떡볶이콘치즈 등을 추가했다.

/신원선 기자

K-바이오, 한타바이러스 대응... 백신·치료제·진단망 구축

아이진, mRNA 예방백신 과제 선정
현대바이오, '제프티' 임상 속도
셀레믹스, 유전자 분석 패널 개발



K바이오 기업들이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며 K백신 주권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제미니이 생성 이미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백신 개발부터 치료제 긴급 공급, 유전자 변이 분석에 이르는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국산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남대서양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다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테스 바이러스에 집단으로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는 등 글로벌 보건 위협이 본격화됐고 'K바이오'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산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보유한 아이진은 정부와 함께 백신 주권 확보에 착

수했다.

질병관리청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한타바이러스 mRNA 예방백신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는 2년 간 30억원이 투입된다. 아이진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정희진 교수팀, 메디치바이오 등 연구진은 한타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모두에 교차 면역원성을 가

지는 후보물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순수 국내 mRNA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990년 GC녹십자가 개발한 '한타박스' 이후 30여 년간 한타바이러스 백신 분야에서 신약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신약개발은 글로벌 혁신 신약 지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부터 mRNA 기반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대규모 mRNA 백신 생산 설비까지 갖춰 원천 기술 내재화를 이뤄냈다"며 "차세대 면역 기술을 지속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바이오는 자체 파이프라인 '제프티' 임상에 속도를 낸다. 제프티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주성분 '니클로사마이드'는 에볼라바이러스와 한타바이러스 모두에 유의미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약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뎅기열 임상 2상에서 저용량 투약군부터 고용량 투약군까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바이오는 임상용 의약품을 방역 현장에 긴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제조 규정에 따라 생산한 임상약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감염 발

생 국가의 지원 요청 시 추가 생산 없이 즉각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복합적인 감염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분야에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전문기업 셀레믹스가 기술력을 강화한다. 셀레믹스는 고유의 '타겟 캡처' 기술로 한타바이러스 분석 패널을 설계했다. 유전 정보를 폭넓게 파악해 알려지지 않은 변이 영역까지 감지할 수 있다. 특히 한타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발생 지역이나 매개 동물에 따라 역학적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밀 유전자 감시가 요구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바이러스는 변이와 유입 경로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분야"라며 "자체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바에피스, 일본 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SB17', 후생노동성 승인 거쳐 출시
지난해 6월부터 니프로와 협업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SB17' 일본 제품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본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SB17(성분명: 우스테키누맵)'을 본격 발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일본 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됨에 따라 일본 마케팅 파트너사 니프로를 통해 현지 의약품 시장에서 출시되게 됐다.

SB17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등에 쓰인다. 면역반응 관련 신호 전달물질인

인터루킨(IL)-12, 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SB17'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 앞서 같은 해 6월부터 니프로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SB17을 포함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일본 내 상업화를 추진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사업본부 정진한 상무는 "일본 자가면역질환 환자에게 고품질 바이오시밀러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 분야의 미충족 수요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X르쥬'

/아모레퍼시픽

전통·현대의 공존... 설화수 x 르쥬 전시 개최

내달 14일까지 북촌 설화수의 집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6월 14일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패션 브랜드 '르쥬'와 협업한 이색 전시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대를 잇는 여성의 방'이라는 주제로 뷰티와 패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브랜드 전통에 대한 해석, 여성 삶의 서사 등에 대해 꾸며진 여러 방을 이동하게 된다. 설화수가 지닌 고유의 미적 자산과 르쥬의 디자인 감각이 독창적인 분위

기와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전시가 열리는 '북촌 설화수의 집' 역시 한옥과 양옥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이 이면 전시의 메시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뷰티와 패션의 언어를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통합해 브랜드의 미학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뷰티 경계를 확장하고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멜라토닌크림' 누적 300만개 팔렸다

동아제약은 멜라토닌크림(사진)이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멜라토닌크림은 동아제약이 2021년 선보인 색소침착 치료제다. 히드로퀴논 성분을 2% 함유한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 과다 생성을 방지한다.

또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 내 멜라닌소체의 구조에 작용해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작용을 한다.

동아제약은 멜라토닌크림을 튜브 형태로 발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50g 대용량 제품을 추가했다. 히드로퀴논은 4% 성분의 '멜라노스 크림'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짙은 기미와 검

버섯 등 색소침착 정도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색소침착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건강 챙기는 가정의달... 정관장 전기식 인기

화애락·RXGIN 매출 나란히 증가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5월 21일)을 앞두고 부모님과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고 있다. '효도 선물'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세대별 건강 고민에 맞춘 실용적 선택이 두드러지며 맞춤형 건강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관장에 따르면 올해 가정의 달 프로모션 기간(4월 23일~5월 16일) 동안 갱년기 여성 건강 브랜드 '화애락' 매출은 전년 대비 1.3배, 남성 활력 전문 브랜드 'RXGIN' 매출은 1.4배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50대 이상 고객의 매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갱년기 여성 건강 브랜드 '화애락'은 부모님 선물 수요와 함께 중장년층의 자기 관리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2003년 출시 이후 20년 넘게 여성 건강 연구를 이어온 브랜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갱년기 여성 건강,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등의 기능성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대표 제품인 '화애락 진 토탈솔루션'은 홍삼에 여성건강 특효 조성물, 녹용 추출액, 사프란 추출물, 저분자 폴리켄 펩타이드 등을 더해 갱년기 여성의 복합적인 건강 고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칼



홍천웅

/정관장

로리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남성 활력 전문 브랜드 'RXGIN' 역시 부모님과 배우자를 위한 건강 선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20대와 50대 고객 매출이 함께 늘었다. 최근 리뉴얼된 'RXGIN 홍천웅'은 홍삼농축액에 스트레스성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SHR-5)을 더하고, 녹용과 구기자·사상자·복분자·토사자·오미자 등을 담은 식물 혼합농축액을 배합해 남성 맞춤형 복합 설계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단순한 선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 관리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20대는 부모님 건강을 고려한 실용적인 선물을 찾고, 50대 이상 액티브 시니어는 노년 대비보다는 현재의 활력과 컨디션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찌든 때 잡는 트리오 신제품 출시

레몬·오렌지향 주방세제 선택

애경산업은 주방세제 브랜드 트리오에서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애경산업만의 세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을 처방해 식기 찌든 때와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는 데도 활용 가능하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를

완료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 마크를 획득해 제품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제품은 레몬향, 오렌지향 등 총 2종류로 구성됐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우수한 세정력과 설거지 후 상쾌함까지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주방 위생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주방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MERICCINO

Original Espresso Cream Coffee



아메리치노 라떼
Americcino Latte



아메리치노
(오리지널 / 스위트)
Americcino (Original / Sweet)





주금공, 어촌 해양환경 개선 ESG 봉사활동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2일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부산 영도구에 있는 동삼어촌체험마을에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ES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비맥주, 동계농협과 국산 쌀 농가 상생 협력

오비맥주는 전날 전북 순창군 동계농협에서 '국산 쌀 농가 상생 협력 기념행사'를 열고, 장기간 협력해온 지역 농가와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부사장과 박재연 광주공장장을 비롯해 양준섭 동계농협 조합장, 순창군 관계자, 지역 고품질쌀 협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



현대백화점그룹, 'ATD 어워드 리셉션' 최고상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인재개발 협회(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주관으로 열린 'ATD 2026 어워드 리셉션'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대희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장(사진 오른쪽)과 토니 빙엄(Tony Bingham) ATD 회장 겸 CEO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팜젠사이언스, 인제 '옥스팜 트레일워커' 참가

팜젠사이언스는 지난 16일~17일 강원 인제에서 열린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박희덕 부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8명은 4명씩 2개 팀을 이뤄 각각 50km, 25km 부문에서 완주했다. 인제문화원을 출발해 발달고치, 원대리 자작나무숲길, 정자리 마을, 내린천 등 인제 대표 명소를 거처며 도전을 이어갔다. /팜젠사이언스



NH농협은행, 실종아동 예방 경찰청장 감사장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실종아동 예방과 사회적 관심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식 NH농협은행 ESG기획담당(오른쪽)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현대로템 노사, 단체교섭 관행 개선하고 상생 나선다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 TFT 발족 현장 소통 강화, 미래과제 공동 도출



김익수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오른쪽)과 남봉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 지회장이 지난 19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TFT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산업 환경과 노동시장 변화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주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현대로템 노사가 단체교섭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지난 19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공장에서 '동반성장 노사미래전략 태스크포스팀(TFT)'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로템 노사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장기 관점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TFT는 노사 공동 선언을 기반으로 상생형 노사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단체교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활동에 집중한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

하는 한편, 미래 과제를 공동으로 도출해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영 체제 전반을 점검하고 비효율적 요소 정비와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임금체계,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 주요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와 체계적 논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TFT는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선언문에는 ▲고용 안정과 상생의 가치 실현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 ▲미래지향적 제도 개선 추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 4개 사항이 담겼다.

김익수 현대로템 경영지원본부장과 남봉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로템 지회장은 각각 노사 대표로 선언문에 서명하고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약속했다. TFT는 오는 22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디펜스솔루션, 레일솔루션, 예코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별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TFT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노사가 공동으로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상징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상생 기반의 노사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LX판토스, 양성평등 기업문화 조성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 준수

LX판토스가 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다양성이 보장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가입하고 지지를 선언했다.

20일 LX판토스에 따르면 WEPs(Women's Empowerment Principles)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니셔티브로,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여성 차별 철폐, 인권 존중 및 동등한 기회 제공 ▲모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 복지 보장 ▲여성인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강화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개발 및 공급망, 마케팅 전략 구축 ▲지역

사회 이니셔티브와 양성평등 확보 정책 공조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 등 투명성 강화를 7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LX판토스는 지난 2023년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WEPs 가입을 통해 여성역량강화 7대 원칙을 준수하고 양성평등 우수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용호 LX판토스 대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음부즈만, 여성기업 판로·R&D 논의

R&D 지원사업 평가방식 변화와 공공구매제도 비율 상향 등 건의

여성벤처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지원시 재무제표 중심의 기업 평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도 의무구매 비율도 올려야한다고 건의했다.

20일 중소기업 음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음부즈만은 전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 음부즈만 외에 한국여성벤처협회 선성미숙 회장, 신민경 수석부회장, 신향숙 부회장 그리고 여성기업 대표 등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리윤바이오 이진희 대표는 "정부에서 다양한 R&D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최승재 중소기업 음부즈만(왼쪽 네번째)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여성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음부즈만

이 있다"며 "개발비 비율을 고려해 별도의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벤처기업인들은 판로, R&D, 인력, 인증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해택 최승인 대표는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hy-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확대

자사몰 '프레딧'서 전용관 운영



hy가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전용관을 오픈했다. /hy

hy가 서울시와 손잡고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온라인 복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이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온라인으로 넓혀,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hy는 13일 서울시와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카드 온라인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경기도주식회사와 유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 지역 아동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 가능 인원은 약 3만7000명 규모로 늘어났다.

21일부터 hy 자사몰 '프레딧' 내에 아동급식 전용관이 별도로 운영된다. 급식카드(쿠폰카드)로 결제하면 상시 2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주문 제품은 hy의 배송 인력인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된다.

전용관에서는 발효유와 우유, 샐러드, 밀키트 등 220여 종의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성장기 아동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 품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주문이 가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건강한 식사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

최후일 hy 홍보부장은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뜻깊다"며 "자사가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서식품, 아동복지단체에 5000만원 기부

위스타트, 푸르메재단 등 전달

동서식품이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과 가족의 일상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나섰다.

동서식품은 20일 아동복지단체에 총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기부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위스

타트, 푸르메재단, 구세군 서울후생원에 전달되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위스타트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가족 니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푸르메재단은 장애 아동의 발달과 놀이 활동을 돕기 위한 보드게임을 구입한다. 구세군 서울후생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한 도서관 환경 개선과 필요 물품 마련에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전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배경택 △복지정책관 김문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 임명 △경영기획이사 김민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획조정실장 조정환 △교역역량개발실장 한정준 △치의생명과학연구원장 설양조 △대외협

력실장 윤형인 △구강공공보건의료센터장 감명환

부음 ▲김진남씨 별세, 김민중(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씨 부친상=19일 오후 4시50분, 정음장례문화원 VIP 101호, 발인 22일 오전 9시30분, 장지 정음 산내면 예덕리선영. 063-535-7777

학교폭력 대입 반영의 이면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교육의 지형도는 2026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입시 현장을 견고하게 지배해 온 성적 지상주의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도덕적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와 수시 전형 전반에 의무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수능 점수가 합격권을 훨씬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과오로 인해 진학이 좌절되는 사례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성적 지상주의 성벽 넘어 '도덕적 시민권의 시대'로

대한민국 교육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입시 현장을 지배해 온 성적 지상주의가 무너지고 도덕적 시민권이라는 가치가 들어선 것이다. 대학이 학교폭력 기록을 전형 전반에 의무 반영하면서 수능 점수가 합격권을 상회해도 진학이 좌절되는 사례가 현실화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인간을 인제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결단이며, 지식 습

득보다 타인에 대한 존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강력한 실행이다.

◆응보적 정의의 정언명령과 교육적 교화라는 상대론적 가치의 충돌

학교 폭력자에 대한 입시 불이익은 두 윤리설의 대립을 부른다. 암마누엘 칸트의 절대론적 윤리설은 도덕을 결과와 상관없는 정언명령으로 규정한다. 타인을 수단화한 폭력은 도덕 법칙 위반이며 대입 배제는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다. 반면 프로타고라스적 상대론적 윤리설은 청소년기의 미성숙함에 주목한다. 사춘기 시절의 과오가 평생의 나인이 되어 성장을 막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 교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사다리를 걷어치는 처사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도덕적 이탈을 타격하고 공동체의 공감 능력을 복원하는 심리학적 과제

로렌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상 청소년은 처벌 공포를 넘어 사회 규범을 내면화해야 한다. 강력한 제재는 행위의 무게를 각인시키는 자극이다. 특히 앨버트 반두라의 도덕적 이탈 개념처럼 일부 우수 학생은 폭력을 합리화하며 피해자 고통을 비인간화한다. 대입 불이익은 이러한 심리적 왜곡을 타격하며 오만한 능력주의의 종말을 선언한다. 가해자의 실패를 목격하는 사회학습 과정은 폭력 전염을 막는 방어 기제이자 공감 능력도 실험력

일부임을 학습시키는 계기가 된다.

◆법률 자본이 초래하는 정의의 사유화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딜레마

제도의 위력이 커질수록 이면의 그림자도 짙어진다. 학교 기록이 대입 당락을 가르자 가해 측은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를 남발하고 교사의 교육적 판단은 법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다. 우려되는 점은 법률 자본의 격차가 도덕적 면죄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마이클 샌델이 지적했듯 돈으로 사는 가치가 시장 논리에 침식될 때 정의는 무너진다. 부유한 가해자가 법률 기술을 합격하는 동안 피해자가 소외되는 상황은 정의의 사유화다. 교사 보호 장치와 감시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통합적 수치심의 모델을 통한 회복적 향로와 인성 평가의 미래

이 흐름은 2028 대입 개편안과 맞물려 인성 평가의 고도화라는 속명으로 이어진다. 대학은 다면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찰 깊이를 읽어낼 질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 방향은 존 브레이크스웨이트가 제시한 재통합적 수치심의 모델이다. 잘못을 엄중히 꾸짖되 진심으로 뉘우친 이에게는 공동체 복구의 길을 열어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존엄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회복적 향로를 설계하는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책임지게 만드는 국가 교육의 최후 보루이다. /JSS진로진학연구소장

청년세대와 '빚투'



기지 수집
안 승 진
(금융부)

요즘 '빚투(빚내서 투자하기)'가 화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인증이 수도 없이 올라온다. 이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코스피의 상승세가 꺾였는데도,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뜨겁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 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 잔액은 이달 들어 40조원을 돌파했다.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주요 증권사가 판매하는 마진대출의 수익금도 지난해 같은 기

관과 비교해 50% 넘게 늘었다. 신용이나 주식 등 현물을 담보로 자본금을 확보해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이다.

최근 국내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의 장밋빛 전망에도 시장 곳곳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나 미래의 기업가치가 아닌, 나 혼자 뒤쳐질 수 있다는 'FOMO(포모·Fear Of Missing Out·기회상실우려)' 심리가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는 우려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가격 변동성이 확대하고, 잘못된 투자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처럼 위험한 빚투가 만연한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세대는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해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만큼 은행권 대출 대신 카드론과 같은 고금리 상품에 노출되기 쉽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큼, 고금리 상품을 활용한 빚투는 장기간의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험을 무릅쓰고 빚투에 나서는 것을 고스란히 청년세대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가 청년세대에 '위험부담'이라는 타고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저축만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위험자산 투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됐다.

하지만 빚투는 부채로 이어지기 쉽고, 부채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청년 세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면 기성 세대의 미래도 불안해진다. 청년 세대가 단기간의 매매 차익에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 상황을 고려해 자산을 분배하는 중·장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도 청년 세대의 투자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 (음 4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http://www.fortunetory.com)

- 48년생**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60년생** 모든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72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손쉽게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84년생**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 49년생** 원하는 수준만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61년생** 알차고 보람있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73년생**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성사 시킬 수 있습니다. **85년생**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 50년생**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62년생** 지금은 인내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74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86년생** 뒤를 돌보는 귀인이 있습니다.
- 51년생** 힘든 상황이 많이 닥칩니다. **63년생** 이것을 꼭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75년생**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87년생** 물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 52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64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6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88년생**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 53년생** 야외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65년생** 어릴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77년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89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 54년생** 큰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66년생** 뜻하는 바대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세요. **78년생** 건강을 조심하고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90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 55년생**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67년생**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79년생** 여자를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세요. **91년생** 심한 언행을 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 56년생**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는 것이 가끔씩 화가 됩니다. **68년생**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80년생**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 57년생** 백만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으리라. **69년생** 어려운 시기가 지나 이제야 호기를 만날 것입니다. **81년생**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93년생** 하늘도 귀하의 뜻을 알고 돕는 형국입니다.
- 58년생** 부와 명예가 함께 하며 기쁨이 따르겠습니다. **70년생** 교육이나 상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82년생** 손실만 있고 이로운은 적으니 신중하세요. **94년생**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도 좋습니다.
- 59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세요. **71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83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이겨나가세요. **95년생** 욕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 오신 날'이 곧 다가온다. 대체휴일이 법제화된 까닭에 올 병오년 석가탄신일은 연이어 이틀이 휴일이다. 큰 사찰이나 작은 암자나 할 것 없이 꽃다운 계절에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찰에서는 산사음악회까지 열며 봉축 행사를 한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 탄신일 하루뿐이겠는가? 내 마음과 행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따라 행하려 한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석가모니는 주변의 누군가에게 자애를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여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하기에 석가모니가 항상 강조하는 자비회사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승속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신도분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준비된 연등 틀에 부드러운 종이로 된 초록색 양으로 두 줄쯤 밀동을 두르고 난 후 노란색, 분홍색 또는 주황이나 붉은 색 꽃잎을 올려 붙이면 마음까지 환해지는 연꽃 등이 탄생한다.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청정함은 진흙으로 대변되는 사바세계 속에서도 맑고 향기롭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발원을 담고 있다. 연등(燃燈)에 불을 밝히면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 무명(無明)을 밝혀서 고통의 원인인 어리석음과 탐욕 성냄을 밝혀서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에 해가 저물면 제등행렬을 한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등들이 화려하게 빛난다. 필자의 마음엔 빈녀일등(貧女一燈)이 가장 아름답다. 간절함으로 바친 정성 부처님 오신 날이 좋은 날에 부처님 마음을 담은 등을 밝혀보시길.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3				5	6	8
6	8			7		9	1
7				3			
	9	7		6			
			5	9			
			3	1	5		
		9					3
3	7		1			8	4
8	5	9				1	2

결합형스도쿠

7		4		8	9	3		2
						1	7	
9	7							5
6	4		1		5			
8								1
			9		8			6
							6	7
5							2	4
		6	8					
3		5	4	9		1		6

클린스도쿠10

2	1	2	9	7	8	6	9	8
7	8	6	9	2	1	9	2	8
8	2	9	8	1	6	7	2	9
2	9	1	7	8	2	8	9	6
9	2	8	6	2	9	8	7	1
9	8	7	1	9	8	2	6	2
6	7	2	8	9	9	1	2	1
1	6	8	2	9	7	2	8	9
8	9	9	2	6	2	1	8	7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1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2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교육감 선거서 이례적 협약... “흑색선전 않겠다”

진보 정근식·보수 윤호상 후보
상호 비방 자제·공정 경쟁 약속
정책·비전 중심 선거 강조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근식 후보 캠프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6·3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와 서울 좋은교육감 추대 시민회의는 20일 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품격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와 미래교육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선언문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비방의 선거가 아니라 서울의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앞에서 교육의 미래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후보 등록 이후 서울

시교육감 선거가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정 후보와 윤 후보를 비롯해 진보·보수 진

영 후보들이 함께 등록하면서 단일화 이후에도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대립 구도가 뚜렷했던 서울시교육감 선

거에서 진보·보수 단일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선거를 공동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후보는 우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선거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 ▲학생 정신건강 ▲기초학력과 학력 신장 ▲AI·디지털 시대의 미래교육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돌봄과 방과후학교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진로·진학 교육 등을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비방, 익명 SNS를 통한 악의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비추는 선거”라며 “경쟁하되 품격을 지키고 비판하되 사실과 정책을 근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도 약속했다. 후보자와 지지자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서울교육의

통합과 안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 안전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디지털 중독 예방, 안전한 돌봄 체계, 통학 안전,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두고 “진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이 더 책임지고 더 잘 가르칠 때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학생의 배움도 넓어진다”며 기초학력 책임교육, 방과후학교 내실화, 진로·진학상담 강화, 돌봄 확대,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서로 다른 입장과 정책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정당당한 경쟁, 상호 존중, 깨끗한 선거문화, 학생들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원칙만큼은 함께 지키겠다”며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총장 65% “서울대 10개 만들기, 도움 안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 250만명 돌파

사총협 ‘한국의 대학 총장’ 조사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 시급 현안
사립대 별도 지원 필요 97.7%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이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거점 국립대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보다 사립대 현실을 반영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총장들의 관심은 등록금 규제 완화와 AI 전환 투자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됐다.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5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사립

대 총장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41.4%)와 ‘그렇지 않다’(24.1%)를 합한 부정 응답이 65.5%에 달했고, 긍정 응답은 11.5%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0%였다.

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컸다.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고, 부정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이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인식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81.6%가 정부 재정지원이 국립대 중심이라고 답했고, 97.7%는 국립대와 별도로 사립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꼽은 대학 현안 1순위

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인하’였다. 이어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유형과의 연계 폐지 ▲대학 관련 규제 전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혁신 과제로는 AI 대응이 핵심으로 꼽혔다. ‘AI 활용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 개발’이 95.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고, ▲우수 해외유학생 유치(95.0%) ▲AI 대전환(AX) 시대에 대비한 행정 및 학사 조직 개편(94.2%)이 뒤를 이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사립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고등교육법이 보장한 법정 한도 내 등록금 인상까지 국가장학금 II유형과 연계해 제한하는 방식은 폐지돼야 한다”며 “평균등록금 이하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평균등록금 이상 대학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개막주간 마켓 매출 12억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20일 만에 관람객 250만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숲·성수동 일대 생활인구와 카드 소비까지 함께 증가하며 ‘체류형 도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이날 기준 누적 관람객 250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숲과 성수동 일대의 생활인구·체류인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람객 유입이 지역 체류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박람회 기간 서울숲 일대 일평균 생활인구는 약 4만2300명으로 직전 4월보다 20.4% 증가했다. 특히 주중 생활인구 증가율은 25.1%로, 특정 주말에만 인파가 몰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는 축제 양상을 보였다. /이현진 기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디마당 휴게쉼터(서울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시점은 개막일인 지난 1일 오후 2시였다. 당시 서울숲 일대에는 내국인 7만2391명, 외국인 3576명 등 총 7만6000명이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관람객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휴게시설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정원마켓을 운영하고 서울숲 내 3개 푸드트럭 존을 배치했다. 개막 후 10일간 푸드트럭과 마켓 매출은 약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환경개선에 150억 투입

기반시설 개선 등 3개 분야

경기도가 중소 제조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 도내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해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복지 개선 ▲소방안전 개선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원이며, 총 사업비 기준 7억 원 이하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70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4000만원이며, 기숙사 신축 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주차장과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을 개·보수하

는 사업으로, 올해 17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 한도는 6000만원이다.

‘소방안전 개선’ 분야는 작업환경 개선과 소방시설 개선으로 추진된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 소기업 범위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과 천장 등 작업공간, 작업대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며, 올해 575개 사업이 포함됐다. 지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경보설비, 무선 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방화벽, 스프링클러 등을 지원하며, 올해 48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39

5월 21일 (목)
음력 : 4월 5일

수도권 날씨
16~20°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 연천 14/20
- 동두천 14/21
- 가평 13/20
- 양평 14/21
- 용인 15/20
- 평택 14/20
- 수원 15/20
- 인천 15/21
- 파주 14/20
- 백령도 15/20
- 서울 16/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푸틴 측근 “트럼프 특사, 조만간 러시아 방문할 것”
▲한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내달 8일 울산항 도착 /사진 뉴스시스

▲EU, 美 무역협정 이행안 최종 승인...관세 갈등 일단락
▲시진핑 “중·러, 정치적 신뢰 심화...더 빠른 발전의 새 단계로”

▲트럼프 “이란 공습 보류 내주초까지”...중재국들 “협상에 진전 없어”
▲한국인 2명 탄 가자 구호선 또 이스라엘에 나포...3명 구금



CJ그룹
PGA 대회서
'하우스 오브 CJ' 운영
나



Life

K-바이오
한타바이러스
대응체계 가동
L2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팀홀튼

국내 커피 시장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캐나다의 국민 커피' 팀홀튼(Tim Hortons)이 차별화된 무기로 한국 소비자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전용 주방 '팀스 키친(Tim's Kitchen)'의 신선함과 캐나다 특유의 따뜻한 현대 문화를 결합한 전략을 통해서다. 팀홀튼은 최근 홈메이드 스타일의 메뉴 다변화와 함께 밀도 높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다.



1 전 매장에서 운영중인 팀스키친.
2 팀홀튼 블랙 커피.
3 팀홀튼이 전개한 빨강머리앤 캠페인.
4 팀홀튼 시그니처 도넛 라인업. /팀홀튼

갓 구운 멜트에 커피 한 잔... 도심 속에 차려진 캐나다 가정식

◆60년 전통의 캐나다 국민 브랜드

1964년 캐나다의 유명 하키 선수에 의해 설립된 팀홀튼은 60여 년 동안 캐나다의 커피와 문화를 대표해 온 아이콘이다. 현재 미국, 영국, 두바이 등 전 세계 19개국에서 약 60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한국에는 지난 2023년 12월 신논현역점을 시작으로 진출했다.

60여 년간 캐나다 커피문화 이끌어 2023년 한국 상륙... 입맛 사로잡아

전 매장 전용주방 '팀스 키친' 구축 멜트·도넛 등 시그니처 메뉴 선택

이후 선릉역점, 분당서현점, 서울시정점, 상암DMC점 등 주요 거점에 빠르게 깃발을 꽂으며 현재 25개 매장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100%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와 책임감 있는 소싱을 바탕으로 시그니처 음료인 '더블더블', '아이스캡'과 '멜트샌드위치' 등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며 국내 커피 마니아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팀홀튼의 가장 강력한 메가히트 비결은 전 매장에 구축된 전용 주방 '팀스 키친'에 있다. 캐나다 가정집 식탁의 정성스러운 홈메이드 감성을 메뉴 전반에 녹여내 기

성 제품들과 확실한 차별점을 두었다.

팀홀튼의 시그니처인 멜트 메뉴는 주문 즉시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한 치즈가 흘러내리는 갓 구운 푸드의 풍미를 자랑한다.

'스파이시 베이컨 체다 멜트'는 다크로스 품미의 팀홀튼 블랙커피와 최상의 조화를 이룬다. 더불어 피타 브레드를 활용한 '아보카도 치킨 피타 브레드'와 '스파이시 치킨 피타 브레드' 등 콜드 샌드위치 라인업을 확대하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안하고 있다.

◆'원재료 본연의 맛' 음료와 식사 메뉴

최근 출시한 요거트 음료에는 일반 파우더 대신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요거트와 실제 과육을 사용했다. 티 라인업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 원료에 국내산 유자-레몬 과육을 블렌딩했다.

인공색소 없이 자연스러운 색감과 은은한 달콤함을 살린 '우베(자색 고구마 계열) 신메뉴 3종' 우베 마스크포네 아

브랜드 철학인 '따뜻한 현대' 펼쳐 아늑한 빈티지 캐나다 콘셉트 재현

빨강머리 앤 협업... 색다른 경험 선사 소설 속 장면, 다양한 메뉴로 재해석

이스캡, 우베 콜드브루 라떼, 우베 라떼)은 컬러 테라피 콘셉트를 접목해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식사 메뉴 역시 진심을 담았다. 캐나다 본사 셰프가 직접 방한해 레시피를 전수한 현지 대표 메뉴 '칠리수프'는 토마토와 쇠고기 베이스에 사워브레드 슬라이스를 곁들여 든 든한 한 끼를 선사한다.

◆밀도 높은 휴식과 스토리텔링 공간

팀홀튼의 공간과 마케팅 전략 속에는 '따뜻한 현대'라는 브랜드 철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오픈한 삼성역점은 경기도 하남미사에서 베타 테스트를 거쳐 대중성을 검증 받은 '빈티지캐나

다 1.5' 콘셉트를 서울 최초로 적용했다.

빈티지 캐나다 콘셉트는 캐나다 현지 가정집과 오두막의 이국함을 도심 속에 재현한 인테리어를 의미한다. 벽돌, 원목, 체크 패턴의 패브릭 소재를 활용해 촉각적·시각적 따뜻함을 극대화했다. 칸막이를 세운 독립형 부스 좌석과 1인 좌석을 배치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개인 업무나 긴밀한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밀도 높은 휴식을 설계했다.

여기에 단순한 지식재산권(IP) 협업을 넘어선 '빨강머리 앤'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정서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원작 소설의 서사를 미각으로 재해석해 앤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은 '체리 초콜릿 가나슈 케이크'로 단짠 다이애나와의 에피소드는 '다즈베리 코디얼 아이스티'로 구현했다.

메뉴 주문 시 모티프가 된 소설 속 장면을 기록한 메뉴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선릉역점과 강남역대룡타워점 등 주요 매장에는 앤의 주방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연출해 입체적인 브랜드 경험을 완성했다.

팀홀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과 매장, 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토리텔링 중심의 IP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국내 소비자들과의 감성적 유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NBA 뉴욕, 연장 혈투 끝에 클리블랜드 제압... 동부 결승 첫 승
▲키움, 서건창과 비FA 다년 계약...2년 최대 6억원 /사진 뉴시스

▲아스널, '철벽 수비·송곳 세트피스'로 우승... "아르테타 시대 시작"
▲52년 만에 월드컵 밟는 민주공고, 美 '에볼라' 입국 제한' 예외 예상

▲41세 포르투갈 '축구 스타' 호날두, 6회 연속 월드컵 무대 밟는다
▲김혜성, 샌디에이고전 3타수 무안타...송성문, 4경기 연속 대수비 출장

SAMSUNG

Galaxy S26 Ultra Galaxy AI ✨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S펜은 갤럭시 S26 울트라에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을 참고하세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세요